

## 제2절 목포 조각계의 흐름과 활동

### 1. 일제강점기 목포의 주요 석조물

1897년 개항된 목포는 호남 지역의 관문으로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중국, 일본 상인들로 북적거렸다. 중국 상인들은 목선을 타고 비단과 소금을 배에 실어서 귀향하였다. 일본상인들은 화산 석으로 제작된 석조물, 기와, 목재 등을 들여왔으며, 일본인 건축가들에 의해 각종 관공서, 은행, 학교, 병원, 파출소, 교회, 상사 등 많은 석건축물들이 세워졌다. 이후 36년간의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불교조각 형식들과 조형물들이 유입되고, 일본인들의 미감에 맞게 변화하였다.

이 글에서는 현존하는 주요 석조물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일제는 침략정책과 식민지 지배를 위해 한반도 곳곳에 신사(神社)를 세우고 참배를 강요하였다. 목포에서도 신사참배를 위한 석조물이 설치되었다. 대표적으로 동명동에 위치했던 송도신사가 있으며 목포부청, 목포 여학교에 참배를 위한 공간이 있었다고 한다.

유달산 일등바위 근처에 신사터 흔적이 남아있는데, 응회암<sup>01)</sup> 위에 양각된 신사입구 모양의 부조가 그것이다(그림 1) 참조). 1923~1924년 약 1년 동안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며, 일본양식을 따르고 있다. 입구 양쪽에는 신사를 지키는 개(고마누이) 한 쌍이 마주 본 형태로, 아래로는 계단이 조각되어 있다. 일본인 석공들은 정, 망치 등을 현장에서 직접 제련하여 사용하였다.<sup>02)</sup>

신사와 함께 주된 목포의 석조물로는 일본 불교 관련 조형물이 있다. 불상조각으로는 유달산 일등바위에 부조형식으로 암각화 된 부동명왕상과 홍법대사상이 대표적인데, 이들 옆에는 2개의 신당이 부조로 구성되어 있다. 목포 시내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유달산의 가장 높은 곳에 조각된 이 조각들은 표면적으로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었지만, 침략을 정당화시키고 시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림 1 신사 참배를 위한 석조물

01) 화강암보다 부드러운 특성을 갖고 있어, 단 시간 내에 조각이 가능하다.

02) 목포시 문화유산 25호 석장 손양동 증언.



그림 2 22번째 불상

또한, 88개소의 영장이 유달산 중요지점에 안치되어 기도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sup>03)</sup>

1931년경 화산석으로 제작된 88영장은 일본 석공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범선을 이용하여 목포항으로 운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높이가 70cm, 너비 67cm 정도의 고부조불상이다. 좌불의 석질은 일명 잿돌로 돌의 무게가 가볍고 조각하기 쉬운 것이 특징이다.

현재는 불상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으나, 목포문화원에 22번째 불상이 보존되어 있으며(〈그림 2〉 참조) 몇몇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 목포문화원에 소장된 불상은 상현좌<sup>04)</sup>에 시무외인<sup>05)</sup>을 하고 있다. 머리 뒤쪽 부분에는 원형 두광이 새겨져 있고, 거신광<sup>06)</sup>은 주형으로 조각의 외형을 이루고 있다. 전체적으로 단순화된 신체는 인체의 특징 파악이 미흡하고 개성 없는 얼굴에 좁아진 무릎, 판에 박은 듯한 통견법의와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입혀진 내의(內衣), 무릎 앞으로 흘러내린 사각의 옷자락이 특징적이다. 두꺼운 법의는 형식적이고 평면적으로 처리하였다. 불상의 좌대 아래에는 좌불 숫자를 기록하였고 뒷면은 기증자의 이름이 각자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시주를 받아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 1) 홍법대사 쿠카이 조각상

일본 불교는 개항 후 7개 종파가 목포 지역에 침투하였다. 그중 진언종파는 홍법대사(공해, 公海: 774~835)가 창시하였는데, 1925년 유달산 일등바위에 홍법대사상과 부동명왕상을 조각하고 일본 불교를 목포지역에 전파하고자 하였다. 홍법대사상은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는데, 얼굴에 드러나는 사실감과 달리 옷의 표현은 두꺼운 통견<sup>07)</sup> 법의에 단순화한 주름으로 표현되었다. 좌대와 등 받

03) 이경화, 「일제강점기 목포 유달산의 홍법대사상과 88영장」, 『동북아역사논총』47, 동북아역사재단, 2015, 171쪽.

04) 불상을 안치하는 대좌의 일종. 상의 옷자락이 표면 및 좌우편으로 길게 늘어 뜨려진 형식의 것을 말한다.

05) 불교 수인의 일종. 오른손(또는 왼손)을 굽혀 어깨 높이까지 세우고 손바닥을 밖으로 돌린 것. 종생의 두려움을 없애고 위안을 주는 의미를 가진 부처의 중요한 인상.

06) 불교의 광배(등, 머리 뒤에 성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해 광명을 표시한 것)형식으로 광명이 전신을 감싸는 형태를 취한 것.

07) 통양견법의 양칭으로 양어깨를 모두 덮는 착의 방법.



침에는 비교적 깊이감을 표현하였다(〈그림 3〉 참조). 좌대의 양 측면의 긴 다리는 앞쪽 다리를 나타내고, 이보다 짧은 안쪽의 두 다리는 좌대의 뒤쪽 다리를 나타낸다. 등 받침에 원근감을 주기 위해 양쪽 팔 받침을 위쪽으로 비스듬히 표현하였으나 굽기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좌대 아래에 놓인 주전자는 정면성을 유의하여 측면으로 그려진 반면, 좌측에 놓인 신발은 중첩법을 사용하여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흥법대사와 부동명왕상 옆에는 2개의 신당이 부조로 조성되어 있다. 원래는 ‘유달산신사(儒達山神社)’라고 새겨져 있었으나 ‘사(社)’자는 훼손되어 희미하게 남아있다.



그림 3 흥법대사상

## 2) 부동명왕상

‘분노한 모습의 불상’을 의미하는 부동명왕상은 1920년대 말 일본인들에 의해 조성되었다.

부동명왕상은 두부가 크고 짧은 다리를 하고 있다(〈그림 4〉 참조). 근육의 표현은 형식적으로 간략하게 처리되었고 의복은 두텁고 의문은 평면적으로 처리되었다. 손이나 칼의 표현도 평면적이다. 신체에서 솟아나는 화염문도 굽고 대략적인 양각으로 형식화하였다. 화난 모습의 얼굴이 표현되어 있고, 몸의 자세는 비교적 운동감이 부족하게 표현되었다. 전체적으로 명왕의 당당함이나 개성이 엿보이지 않는다.



그림 4 부동명왕상

## 3) 정혜원보현보살상

목포시 유달동에 소재한 정혜원에 있는 보현 보살상은 193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근대 불상의 한 유형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보현불상은 하얀 코끼리를 타고 부처의 오른쪽에서 보필하는 모습으로 표현된다(〈그림 5〉 참조). 보현보살은 문수보살과 함께 모든 보살들의 우두머리로서 부처가 중생을 구제하는 일을 조성하고 선양한다.



그림 5 정혜원보현보살상(좌측)과 정혜원5층석탑(우측)

손양동의 증언에 의하면 보현보살상은 일본인 석공 이케다<sup>08)</sup>에 의해 1930년에 조각되어 고하도 암벽에 설치되었던 것이 지금의 장소로 옮겨진 것이다.

정혜원의 보현보살상은 주형거신광에 낮은 부조로 조각되었다. 목포에서 채굴된 응회암(일명 형무소돌)을 사용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노란 색조를 띠고 있다. 세부 조각 기법을 살펴보면 원숙함이 부족한 듯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부조의 깊이감이 떨어진다. 표면은 거칠게 마무리 되었으며, 1990년도에 채색되어 있는 모습이었으나 지금은 그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 4) 정혜원5층석탑

근대에 제작된 일본양식의 다른 예로 목포시 죽교동 정혜원에 있는 5층 석탑을 들 수 있다(〈그림 5〉 참조). 약 210cm 높이의 이 석탑은 일본 소화 6년 2월(昭和六年二月, 서기 1921년 2월)에 건립되었다. 현재는 4층의 옥신석과, 옥개석, 그리고 상륜부의 일부는 유실된 상태이다. 기단부는 방형의 대좌형식으로 비교적 작은 규모이다. 현존하는 3개의 옥신석은 사방으로 뚫려있어 마치 석등의 화창을 연상하게 한다.

08) 이케다는 1925년 당시 나이 30세로 초가집을 짓고 석공방을 하였다.

이 석탑은 전체적으로 불탑과 석등의 복합적인 형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일본식 석탑의 한 종류로 이해된다. 목포시에 소재한 근대 석탑 중 전통적인 형식을 보여주는 석탑도 있는데 유달동 이훈동 정원에 있는 방형 칠층석탑이 있다.

## 5) 달성사 불탑

탑파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부처의 사리를 안치하는 성스러운 구조물로서 불교의 전파와 함께 각 지역에 세워졌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시대에 따라 다양한 양식이 나타난다.

조선시대에는 전반적으로 탑 건립이 미미하였고 고려시대 석탑 형식을 그대로 추종하는 경우가 많았다. 20세기 초 일제의 영향아래 전통적인 불탑의 조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본식 불탑만 드물게 건립되었다. 근대 초기 목포 근교에 건립된 불탑은 유달산 근처에 국한되어 있다.

유달산 북동쪽 기슭에 자리 잡은 달성사에는 1921년에 세워진 불탑이 2기 남아있다. 미타탑으로 불리는 나무아미타불탑은 이 시대의 대표적인 일본식 탑으로 이해된다(〈그림 6〉 참조). 기단부는 미적인 요소보다는 건축적인 의미의 넓은 방형의 낮은 형태에 불과하다. 3층의 방형 탑신부는 1층의 전체 비율에 반 이상을 차지하고 2층과 3층의 크기는 급격히 줄어드는 형태이다. 1층의 옥신부는 위로 갈수록 약간씩 줄어드는 형태를 띠며 측면 사면에는 각종 명문이 각자되어 있다. 2층과 3층의 옥신부는 가운데가 약간 들어간 형식으로 옥개석에 비해 매우 작게 제작되었다. 옥개석의 낙수면은 위로 치켜 올라가는 형태로 전통적인 방식에서 흔히 보이는 역피라미드형 개석받침은 생략되었다. 탑두부는 2개의 납작한 구형 복발(覆鉢)위에 물방울 형태의 보륜(寶輪), 보개(寶蓋), 수연(水煙), 용차(龍車), 보주 등이 차례로 얹어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상륜부에 비해 매우 간단하게 표현되었다.

미타탑에 비해 크기는 약간 작지만 형태에서 거의 흡사한 석탑으로 달성사 경내 1기가 더 있다. 이것은 삼층석탑으로 1층 옥개석으로부터 윗부분만이 남은 것으로 1층 탑신부와 기단부가 유실되었다. 본래 위치에서 옮겨질 때 이동이 용이한 부분만을 옮겨 놓은 결과인 듯하다.



그림 6 달성사 미타탑

## 6) 문예역사관 해태상



그림 7 향토문화관 해태상

1938년 손양동에 의해 제작된 해태상이 문예역사관(구 향토문화관) 뜰에 보존되어 있다. 해태상은 화재나 재앙을 물리치는 신수(神獸)로 벽사(辟邪)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주로 궁궐 등을 장식하는데 활용하였다.

이 해태상은 화산암의 일종인 응회암으로 제작되었는데, 일명 ‘진섬’이라고 불리던 문태고등학교 인근에서 채취되었다. 응회암은 목포 지역에서 건축, 돌담, 조각, 생활용품 제작 등에 많이 활용되었는데 얇은 푸른 색조를 띄고 있다. 또한, 돌이 부드럽고 화재에 강해 석조각에 많이 활용되었다.

작품은 기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정과 망치만을 이용하여 수가공으로 제작되었는데 형식에 구애받지 않은 대담함, 과감한 생략으로 단순하게 표현되었으며, 큰 코와 활짝 웃는 입, 들쭉날쭉 튀어나온 입모양에서 해학미를 엿볼 수 있다.

이 작품은 남농 허건이 손양동 석장에게서 수집한 것으로 남농은 평소 예술인들과 작품을 교환하거나 매입하기도 하였다. 1965년 남농과 교류하였던 손양동이 소장한 편지에서 그러한 상황을 읽을 수 있다.

데크에 보장해 두었던 작품들을 배렘 했습니다. …… 앞으로 좀 더 친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남농) 화실에 드나든 무수한 취미 손님이 많이 옵니다. 선전 많이 하기로 해서 이번 피차의 작품 교환에 흥미 있습니다.

## 2. 해방 이후~현대 목포의 조각

### 1) 유달산 마애불

유달산 마애불은 석공 박종삼에 의해 1948년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8〉 참조). 손양동은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산행을 하다 제자 박종삼을 보았는데 일등바위 아래 암벽에 조각을 하고 있었다. 암벽에 밑그림을 그리고 선을 따라 끝정으로 선각하는 모습이었다.’





해방이후 일본인들로부터 자유로워지자 몇몇 석공들이 유달산 암벽과 바위에 조각을 하거나 각자를 하였는데 그 흔적들을 아직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림 8 유달산 마애불 (박종길, 『목포개항100주년기념 목포, 우리들의 고향 1958~1996』, 삼화문화사, 1997, 17쪽)

## 2) 대반동 아기바위 인어상

목포시 죽교동 대반동 바다에는 아기바위와 인어상이 있는데(〈그림 9〉 참조), 예로부터 아기바위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곤 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아이를 기를 형편이 되지 않은 부녀자들이 아기를 인근 바다에 던졌다는 것, 대반동 바다에 빠져 죽은 한 예쁜 여자가 인어가 되었으며, 아기 바위 위에 인어상과 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는 것, 아기바위 근처에서 수영하던 아이들이 이상하리만큼 많이 죽었다는 것 등의 이야기들이 그것이다. 인어상이 세워진 이후에는 익사 사고가 많이 줄고, 아이들의 영혼을 달래주었다고 믿고 있다.

인어상은 1980년 목포에서 주관하게 된 ‘청년회의소 전남지구회 회원 대회 행사’를 기념하는 의미로 목포청년회의소가 세웠다.

아기바위 위에 설치된 인어상(가로 0.9cm, 세로 0.4cm, 높이 1.2m)은 홍순모의 작품으로 청동으로 되어있다. 좌대에는 ‘JCI(Junior Chamber International) Korea 목포’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림 9 대반동 아기바위와 인어상

인어상은 설치 이후 접근성이 부족하고 만조 시 물에 잠긴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었다. 목포시는 만조 시에도 조망이 가능하도록 자연석을 이용해 높이를 조정하고 주변 데크 시설과 포토존, 스토리 안내판 등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현재에는 보다 가까운 곳에서 조망이 가능하도록 전망대 전방으로 5단 계단만 보수 설치된 상태이다.

### 3) 목포 상징 조형물

목포 상징 조형물은 목포 시민상징탑 건립 추진위원회(조효석, 김암기, 김환, 남예진, 유재열, 박종길)에서 선정된 조각가 홍순모, 김창세, 김광진 3인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제작비 1억 1천만 원은 조선내화 이훈동 회장이 기부하였다(〈그림 10〉 참조).

목포 상징 조형물은 1988년 9월 20일 목포 3호 광장 분수대 위에 설치되었는데 작품이 세워지자 목포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게 된다. 당시 시민들에게 이야기 되었던 내용들을 중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표현방식을 문제시한 몇몇 시민들이 있었다. 한때 3대항 6대시 중 하나로 번영을 이루었던 목포시는 오랫동안 정치, 경제적으로 소외되어왔다. 목포 상징 조형물의 인물은 우울한 표정에 허름한 양복을 입고 작달막한 키를 하고 있었는데, 서해안 시대를 맞이한 일부 시민들은 밝고 명량하며 활기찬 모습을 원했다는 점이다.<sup>09)</sup>

상징 조형물을 바라보며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때 군인들에게 끌려가던 시민들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하였으며, 놀음판에서 돈을 잃은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하였다. 몇몇 시민들은 괴롭고 힘든 현실을 이겨낸 당당한 모습의 군상을 바라보며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둘째, 최초로 작품이 처음 설치되었던 위치 선정에 대한 불만이 이야기 되었다는 점이다. 1980년도에 3호 광장은 유동인구가 많고 교통이 혼잡한 변화가였다. 그에 반해 도로는 좁고, 건물들이 복잡하게 얹혀있는 상태였고, 복잡한 와중에 분수대까지 설치되어있는 상태였다. 조형물이 설치되기 전부터 교통체증과 과밀집화에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형물이 분수대 위에 설치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 반대 여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목포예술인 100여 명은 「우리의 견해」라는 표제로 이 작품에 대한 긍정적인 성명을 연서로 발표하였고, 미술평론가들도 이 작품의 예술성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한국화가, 언론인이었던 조효석은 1989년 1월 19일 『전남일보』에 「목포 상징 조형물



그림 10 목포 상징 조형물

09) 『목포투데이』 2007. 04. 11. 「김병고의 목포예술인들의 빛과 그림자」.

시비」라는 글에서 문제의 핵심을 대중성과 예술성의 상충이라고 보았다.<sup>10)</sup> 결국 목포 상징 조형물은 1989년 3호 광장에서 지금의 목포자연사박물관 앞뜰로 이전 설치되었다.

#### 4) 어민동산 - 어민상

목포시 죽교동은 어민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다. 어로활동 중 숨진 선원들의 넋을 위로하고 풍어를 기원하고자 어민상을 설치하고 어민동산을 건립(1995)하였다.<sup>11)</sup> 어민동산 초입부분에 설치된 어민상은 1994년 12월 김광진이 제작한 작품으로 규격은 길이 5.6m, 높이 4m, 재료는 화강암이 사용되었다(〈그림 11〉 참조). 총 10조각을 이어 붙였는데, 몸체와 노(櫓)가 2부분, 파도와 배를 형상화한 부분이 8조각으로 되어있다. 높은 파도에 노를 젓고 있는 선원의 당당한 기상이 엿보인다. 어민상 뒷부분에는 소설가 박화성이 작사한 「목포의 찬가」 일부를 각자(刻字)하였다.



그림 11 어민상

#### 5) 내고향 섬마을 이야기

목포 연안여객선 터미널 입구에는 「내고향 섬마을 이야기」가 있다(〈그림 12〉 참조). 2006년 12월에 김왕현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 입구에 설치되어 있다.

#### 6) 민주화의 불길 - 4·19 민주혁명 기념비 -

목포시는 2008년 평화광장(달맞이 공원)에 4·19 민주혁명 기념비를 건립하였다(〈그림 13〉 참조). 1960년 4월 19일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독재에 항거하여 일어났던 4·19혁명에 희생된 목포 지역 출신 사망자 채광석, 김부연, 부상자 고종채, 서병식 등의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기리고자 4월 혁명 48돌에 목포 시민의 뜻을 모아 2008년 4월 19일 세워졌다.

10) 『목포투데이』 2007.04.11. 「김병고의 목포예술인들의 빛과 그림자」.

11) 『연합뉴스』 1993. 11. 26. 「[지방단신] 목포 어민동산 건립」.

기념비는 크게 두 덩어리의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 부분에는 햇불에 불을 켜는 인물의 모습이 형상화 되어 있다. 윗부분은 햇불 모양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두 부분은 서로 이어 붙이지 않고 엮어진 상태이다.

2015년에는 4·19혁명 55주년을 맞이하여 4·19 민주혁명 기념비에서 참배식을 거행했다. 참배식에는 이낙연 전라남도 지사, 박홍률 목포시장을 비롯한 시도 단위 기관단체장 등 100명이 참석하였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독재정권에 항거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4·19정신을 계승하자는 의미로 헌화, 분향, 묵념 등이 진행됐다.<sup>12)</sup>



그림 12 내고향 섬마을 이야기



그림 13 4·19 민주혁명 기념비

## 7) 석조 전시관

2014년 개관한 손창식 석조전시관은 전남 최초의 석조 전시관<sup>13)</sup>으로 목포시 석현동에 위치해있다. 총 9,800㎡규모의 전시관에는 총 800여 점의 석조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12) 『매일일보』 2015. 04. 20. 「목포시, 제55주년 4·19혁명 기념비 참배식」.

13) 『광주일보』 2014. 09. 15. 「전남 최초 '석조 전시관' 3대장인 정신 꽃피다」.



### 3. 목포 조각 관련 단체의 활동

#### 1) (사)한국미술협회 목포지부

미술협회 목포지부는 목포미술협회 정기전, 예향작가전, 동서예술 교류전 등의 전시회를 열고 있다. 목포 미술인의 밤을 통해 예술인들과 교류하며, 매년 학생 사생실기대회를 열고, 수상작 전시를 통해 전시 기회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표 1 목포 미협 활동 내용

날짜	내용	비고
1958년 9월	목포문화협회 발족에 따라 제목 양화가 11명 양화가협회 결성	회장: 백흥기 간사: 강동문·김수호
1959년 10월	목포 미술인 총집결 -목포미술협회로 개편	회장 허건 부회장: 장덕, 간사: 강동문·김수호·백흥기
1974년 12월	정관 개정 및 임원 개선	분과위원장: 양문철(조각)
1976년 10월	임원보선	분과위원장: 김영순(공예, 디자인)
1977년 2월	정관 개정 및 임원 개정	조각분과위원장: 양문철
1980년 3월	임원개선	공예분과위원장: 김영순
1982년 12월	임원개선	조각분과위원장: 홍순모
1986년 3월	임원개선	공예분과위원장: 장주원
1989년 3월	임원개선	조소분과위원장: 김창세
1995년 3월	임원개선	공예분과위원장: 장석
2007년 3월	제 17대 임원 개선	공예·조소분과위원장: 김옥수
2010년 4월	임원보선	공예·조소분과장: 손창식
2015년		공예·조소분과장: 손창식

자료: 한국미술협회 목포지부.

목포에서 가장 큰 예술인 단체였던 목포 미협은 민미협 발족에 영향을 받았다. 조각분과장, 회원들이 민미협으로 이동함에 따라 조소분과의 인원이 축소되었다. 현재 공예·조소분과에는 김옥수, 김판삼, 손창식이 활동하고 있다.

## 2) 목포 민미협

1980년대 관념적인 한국현대미술과 광주민주화 운동으로 드러나게 된 우리 사회의 정치상황에 대한 안티-테제로 출발하여 1985년 11월 22일 민족미술협의회<sup>14)</sup>가 창립하였다. 1995년 12개 지역 미술운동 단위를 묶는 전국민족미술인연합을 결성하였으며, 2000년 사단법인 민족미술인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0년 기준 전국 14개 지회 13개 지부로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sup>15)</sup> 전남지회는 박대석 지회장을 중심으로 목포지부, 여수지부, 영광지부가 있는데, 목포지부 지부장은 김성렬이 맡고 있다.

목포민미협 회원들은 서울 민족미술협회 주최로 1996년 12월 20일~30일까지 열린 ‘제8회 조국의 산하전’에 영산강의 오염실태를 생선뼈무덤으로 상징화한 작품 「영산강 -넋」을 전시하기도 하였다.<sup>16)</sup>

목포 민미협 조각분과에는 김성열, 박선제, 박현화, 송일석, 안상오 등의 작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 3) 예목회

1993년 김영자 화백을 중심으로 목포 예술인들의 모임 예목회가 결성되었는데 토박이 예술인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문학, 국악, 음악, 연극, 무용, 사진 등 다양한 분야의 회원들이 함께하였으며 미술 분야에서는 한국화, 서양화, 서예, 조각, 도예 분야의 회원들이 있었다(강금복, 김경돈, 김광채, 김문호, 김성옥, 김신재, 김연주, 김은경, 김은옥, 김장성, 김정식, 김철수, 마영식, 박수경, 박인승, 박인희, 박종만, 방식, 설진희, 손창식, 윤현식, 이매방, 이미례, 이성덕, 이영춘, 이웅성, 이찬순, 이화길, 임장성, 임점호, 임칠진, 장근현, 정다운, 정석산, 정운태, 정진태, 조동준, 조로옥, 조병현, 조효석, 주경희, 채은주, 최건, 최하림).

예목회 주도로 매주 토요일 목포 시민들과 토박이 예술가들이 소통하는 문화 행사가 열렸다. 음악 연주, 무용 공연, 인물화 그려주기 등의 미술 행사가 함께 이루어졌다.

예목회는 토요일마다 행사진행을 위해 필요한 음향장비를 목포시에서 빌려 사용하였다.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토요일마다 행사가 겹치는 날에는 시에서 음향시설을 가져가버려 음향기기 없이 행사가

14) 원동석(전 목포대 미술학과 교수)은 민족미술인 협회 결성을 주도하였으며, 1999년 민미협 대표를 역임하기도 하였다.

15) 사단법인 민족미술인협회(<http://www.minart.org>, 2017. 03. 05.).

16) 『한겨레』 1996. 12. 18. 「이땅의 강과 민족현실의 만남」.

진행되었다. 이에 김영자 화백은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의 공식 주제가인 「손에 손잡고(Hand in Hand)」를 부른 보컬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에게 자문을 얻고, 사비 3천만 원을 들여 음향기기를 구매하였다. 이는 당시 성대하게 진행되던 토요일당 행사를 위해, 그리고 목포 시민들과 토박이 예술인들을 위한 것이었다. 또한 출연진, 회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식사까지 챙겨 당시 식사비용, 행사 뒤풀이 비용으로 매달 250~3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는데, 모든 비용은 김영자 화백이 사비로 충당하였다. 토요일당 이외에 1995년을 시작으로 ‘토박이 모듬전’이라는 전시회가 열렸는데 조각분야에서는 김문호, 김신재, 손창식이 참여하였다.

표 2 예목회 활동 내용

날짜	전시명	장소	참여인원
1995년	제1회 토박이모듬전	목포해양유물전시관	-
1996년 7월	제2회 토박이모듬전	목포MBC전시실	한국화 4명, 서양화 2명, 서예 1명, 조각 1명, 도예 1명
1997년 7월	제3회 토박이모듬전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한국화 8명, 서양화 4명, 서예 2명, 조각 1명, 도예 1명, 옥공예 1명
1998년 9월	제4회 토박이모듬전	목포문화예술회관	한국화 9명, 서양화 5명, 서예 2명, 조각 2명, 도예 1명, 공예 1명
1999년 12월	제5회 토박이모듬전	목포문화예술회관	한국화 8명, 서양화 3명, 서예 2명, 조각 2명, 도예 1명, 공예 3명
2000년 11월	제6회 토박이모듬전	목포문화예술회관	한국화 9명, 서양화 3명, 서예 3명, 조각 1명, 도예 1명, 공예 2명
...	...	...	...
2005년 6월	제10회 토박이모듬전	목포문화예술회관	회화 7명, 서예 1명, 공예 2명, 조각 1명

자료: 『목포토박이모듬전』 도록 각연도.

토박이모듬전 창립전 자료는 카달로그로 제작되지 않고 리플릿으로 제작되어 자료를 찾아보기 힘들다. 1996년 7월에 열린 제2회 토박이모듬전 카달로그에 남아있는 김영자 화백의 인사말을 보면 예목회의 목적, 지향성을 엿볼 수 있다.

마음과 영혼을 올리는 이 땅의 예술혼이 되겠습니다.  
 소리로 토박이의 애환을 /노래로 삼학도의 전설을/  
 그림으로 유달산의 사랑을/ 사진으로 다도해의 찬란한 미래를  
 먹으로 목포인의 기상을/ 돌과 흙으로 혼을 불살라/  
 글로 토박이의 한을 토해서/ 토박이 모듬전을 열었습니다.(중략)

예목회장:김영자(제2회 토박이 모듬전)

예목회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함께 문화행사를 열고, 전시회를 가졌다는 점, 목포 출생 토박이 예술인들의 모임이었다는 점에서 다른 단체들과 다른 성격을 보여준다.

#### 4) 목포 조각협회

목포 조각협회는 목포에서 활동하는 조각가들에 의해 결성되었으며, 강남영, 광명상, 김경자, 김남술, 김두석, 김문호, 김성열, 김판삼, 마석봉, 박선제, 박현화, 손창식, 송일석, 양공육, 최형탁 작가가 활동하였다. 2007년 문화예술회관 창립전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매년 정기전시회가 열렸다.

목포 조각협회 회원 중 몇몇은 2008년 유달산 조각공원 작품교체 시기에 재계약 작품에 선정이 되었다.

#### 5) 목포 환경미술협회

환경미술협회는 2006년 창립되었으며 녹색미술회화전, 환경수채화대전, 환경미술엑스포 등을 개최하였고, 미술을 통해 환경운동에 기여해왔다. 목포지부는 2007년 4월 21일 11개 분과 70여 명이 참여하며 창립되었다.<sup>17)</sup> 1대 지부장 손창식(조각), 2대 지부장으로 박정자(서양화), 3대 지부장으로 신은주(디자인)가 선임되었다.

환경미술협회는 ‘생생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목포시 주변을 아름답게 꾸미는 활동, 재활용을 모티브로 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활동, ‘자연과 사람전’과 같은 전시활동을 펼쳤다(〈표 3〉 참조).

**표 3** 목포 환경미술협회 활동 내용

날짜	전시명	장소	참가자(조각)
2009년 8월 1일	1회 자연과 사람전	목포문화예술회관	김성열, 김판삼, 손유진, 손창식, 안상오
2010년	2회 자연과 사람전	...	...
2011년 9월 16일	3회 자연과 사람전	목포문화예술회관	김판삼, 손창식, 안상오, 정경탁

자료: 『자연과 사람전』 도록 각연도.

17) 『목포투데이』 2007. 04. 17



#### 4. 목포 조각공원

목포 유달산 조각공원은 1982년에 개원한 전국 최초의 야외공원으로 목포시와 한국조각공원연구회 김영중(金泳仲) 회장이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동년 1월에 불량주택 밀집 지역에 시민공원을 조성하고자 유달산시민공원추진위원회(위원장: 행남사 김준형 회장)가 구성되어 만여 평의 부지를 조성하였다.

조각공원의 설치, 조경 및 관리는 목포시가 담당하며 조각가들은 1백여 점의 등신대 크기의 작품을 출품하였다. 전시될 작품들은 목포시와 작가 사이에 10년의 계약을 체결, 공원 입장료 수입의 50%는 공원관리비로, 50%는 조각가들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었다. 작품이 판매될 경우 작가에게 70%, 관리자인 목포시에 30%를 기증하는 이른바 상업 화랑식 운영제도를 택하고 있다. 작품이 판매될 경우는 놓여있던 자리에 동일 작가의 다른 작품을 대체하도록 되어있다. 한국 조각공원 연구회 회원 44명의 작품 100점을 12년간(1982.11~1994.11) 임대 전시하였다.<sup>18)</sup>

1994년 한국조각공원 연구회와 14년(1994.11~2008.4) 재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68명의 작품 78점(기증작품 13, 임대작품 65점)을 전시하였다. 그 중 목포출생 작가 김광진(조소)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김광진은 홍익대학 재학시절 스승 권진규를 만나 소조 작업에 매료되었으며 1972년부터 타계한 2001년까지 환조, 부조, 구조물과 인물을 적절히 배치하는 작업을 하였다.<sup>19)</sup>

조각공원에 전시된 작품은 13년 주기로 교체되었는데 조형예술의 시대성에 부합된 작품을 전시하지 못한 점, 1982년 이후 목포 지역작가가 선정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로 2008년부터 3개월 동안 임시로 문을 닫고, 해양의 중심도시인 목포를 상징하는 ‘자연, 문화, 조각’ 이라는 주제와 ‘바다’라는 부제 아래 공모작을 선정하여 8월 28일 재개장 하였다. 41점의 작품(신규 작품 31점, 재전시 작품 8점) 중 일부 작품은 재전시되고, 목포지역 작가들, 국내 저명한 조각 작가 작품뿐 아니라 국제조각 심포지엄을 통해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은 외국작가들의 작품이 추가로 전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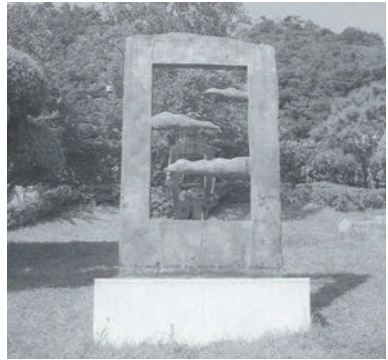


그림 14 「고향바다」(김광진 조각)

18) 『동아일보』 1982. 10. 15. 「유달산에 조각공원」.

19) 『연합뉴스』 2003. 02. 25. 「조각가 김광진의 2주기 유작전」.

신규작품 31점 중 목포대학교 교수진 2명(김창세, 홍순모), 목포 조각협회 회원 4명(김경자, 박선제, 박현화, 손창식)의 작품이 전시되었는데, 외부 지역 작가들로 이루어졌던 조각공원에 처음으로 목포 지역에 활동하는 작가들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림 15 「대화」



그림 16 「남도인의 맛과 멋」

홍순모의 작품 「대화」는 인체형상에 공간을 만든 투조형식으로 야외 공간을 작품 공간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또한 인체를 단순화하여 실존을 표현하였으며, 마주보고 있는 모습을 통해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김창세의 작품 「남도인의 맛과 멋」은 남도인의 품성을 표현한 작품으로 큰 코에 웃는 얼굴을 한 형상, 각진 모양의 추상적인 형상을 하고 있다. 재료로 화강암이 사용되었으며, 큰 톱을 이용하여 깎아 가는 조각기법을 활용하였고, 잔다듬 기법으로 마무리하였다.



그림 17 「그리움 -우리들의 이야기-」



그림 18 「물의 여인들」

김경자의 작품 「그리움 -우리들의 이야기-」는 화강석으로 제작되었으며 그리움과 사랑이라는 서정적인 주제로 바다와 섬, 파도의 이미지를 곡선의 흐름으로 단순화하여 형상화하였다.

박선제, 박현화의 공동 작품 「물의 여인들」은 화강석으로 제작되었다. 물의 파장으로 생긴 곡선을 여인의 정면, 측면, 후면의 모습에 비유시킨 것으로 세 형상은 서로 파장을 전달하거나 소통하며 바다, 혹은 강물로부터 탄생하는 생명의 에너지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유달산 장수」는 손창식이 제작하였으며 유달산과 삼학도 전설에 등장하는 장수의 모습을 전통적인 조형기법으로 형상화하였으며, 목포와 유달산을 지키는 장수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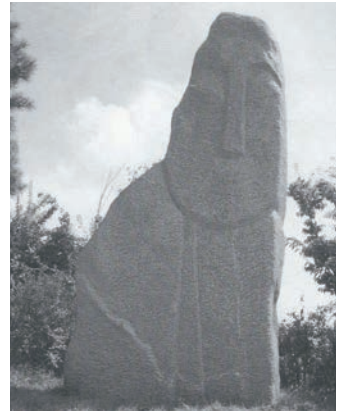


그림 19 「고향바다」(김광진 조각)

한편 조각공원은 외국 조각가의 작품 7점을 더 전시하여 국제공원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2009년 국제 조각작품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외국작가 3명(네덜란드, 영국, 포르투갈)의 작품 3점을 추가로 전시하였고, 2010년에는 2명의 외국작가(이탈리아, 프랑스)의 작품을 제작, 설치하였다.

## 5. 설치미술

목포 조각은 1990년도까지 미술관에 전시하는 전시 방식이 주류를 이루었다. 최근에는 조각품들이 전시장 밖으로 나와 시민들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주변 환경이나 공간을 아울러 작품과 환경 그 자체가 작품이 되는 미술<sup>20)</sup>로 변화해 가고 있다.

### 1)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은 목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극단 갯돌<sup>21)</sup>과 목포MBC 주관으로 2001년부터 운영되어온 축제이다.

2010년 10주년을 맞이한 목포마당페스티벌은 특별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조각가 박선제 설치작품 「강



그림 20 「강(江)」(극단갯돌 제공)

20) 월간미술, 『세계미술용어사전』, 2010, 245쪽.

21) 극단 갯돌은 1981년부터 군사정권시절 탈춤, 풍물, 미술, 노래, 연극 등의 문화교실을 열어 문화정서를 함양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江)」은 통나무를 활용하여 멸종위기에 놓인 4대 강의 희귀 물고기들을 그려놓았다. 이 작품은 유달산 유달 예술촌 입구에 설치되었었다.<sup>22)</sup>

2011년 제11회 목포마당 페스티벌에서는 갯돌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미술평론가 원동석 서양화가 박석규를 비롯한 미술패 작가들이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주제로 걸개 그림, 현장미술회고 오늘전 등의 전시가 이루어졌다. 조각분야에서는 박선제, 박일정 작가가 참여했다.

## 2) 생생도시프로젝트

환경미술협회 목포지부는 2012년부터 자연, 환경, 도시 라는 주제로 목포시 내에 숨은 공간을 찾아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생생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다.<sup>23)</sup>

2013년 목포 원도심 만호동에서 시작된 ‘생생도시 프로젝트Ⅰ’에 이어 2014년 유달산 달성 주차장에서 ‘생생도시 프로젝트Ⅱ’가 진행되었다.



그림 21 유달산 주차장 벽면 모습

1차 설치 장소는 문화예술회관 초입으로 선정되었으나, 시청 문예과와 장소협의를 통해 원도심 인근 유달산 주차장으로 장소를 변경하였다. 같은 해 8월 15일 환경미술협회 작가들과 자원봉사 학생들, 시민들이 함께 벽 앞에 모여 외벽 중앙과 좌우 벽에 작업하였다. 인물상과 유달산을 단순화 하여 표현한 밑그림에 폐석재를 조각내어 모자이크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남은 공간에는 회화 그림들이 채워졌다.

## 3) 바다 이야기(목포대학교 미술학과)

목포대학교 김창세, 전성규 교수와 미술학과가 무안 오승우 미술관에서 바다를 주제로 설치, 회화 작품 전시회를 가졌다. 설치 작품들은 김다희, 김대한, 김수진, 김정모, 김혜수, 윤동훈, 윤지원, 윤하람, 이경화, 조여나, 조한솔, 후경 등이 공동으로 제작하였다.

22) 극단 갯돌(<http://blog.daum.net/getdol>, 2017. 04. 20.).

23) 『호남타임즈』 2015. 09. 01. 「환경미술협회 목포지부 생생도시 프로젝트 Ⅲ」.



이상에서 주요 석조물과 조각, 단체활동 등을 중심으로 목포 조각계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목포 조각은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를 겪으며 일본식 석조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러한 일본 양식들은 일본인들이 남긴 자료, 문서 등을 통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석조들은 목포를 상징하는 유달산에 밀집되어 있으며 그밖에 불상, 탑 등이 개인들에 의해 소장되고 있다. 흥법대사, 부동명왕상은 다른 연구에서도 많이 다뤄졌으나 일부 석조각, 탑, 부조 등은 우리의 전통 양식과 혼동되기도 한다. 유달산 암벽에 조각된 그밖의 조각들도 누가 언제 제작하였는지에 관한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 후행 연구를 통해 아픈 과거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당시의 작품에 대해 기록하고, 전통과 전통 아닌 것을 구분하여 일제강점기 목포 조각에 대해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겠다. 또한 여기에서 미처 밝히지 못했던 부분들 또한 다음 연구자를 통해 계속 연구되길 기대해본다.

해방 이후에는 몇몇 조형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작품이 제작 되었는데 일제강점기와 같은 석조물이 대부분이었다. 석재가 많이 사용되었던 것은 조각뿐만 아니라 건축에도 해당되었는데, 당시 목포에는 석공방이 많이 있었으며 근처에 좋은 석재들이 많이 분포, 유통된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당시에 제작된 조각들에 대한 자료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고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몇몇 작품들의 제작자와 연도만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79년대 목포대학 미술학과가 신설되고 조각 전공자들이 배출 되면서 회화가 주류를 이루던 목포 미술계에 조각가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배출된 작가들은 조각공원 작품제작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오늘날에는 개인전, 협회전, 정기전 등의 전시를 통해 목포 지역인들과 작품으로 소통하고 있다. 최근 조각경향은 미술관 전시에만 머무르지 않고 설치작품, 공동작품, 환경조각 등을 통해 점차적으로 확장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22 「유리물고기」(윤지원·조여나·김수진)

손창식 | 손창식석조전시관 관장  
손유진 | 손창식석조전시관

### 제3절 목포 서예계의 흐름과 활동

목포 개항이후 1세기 동안 목포서예를 살펴보면 1945년 해방이전에는 서예술의 전문분야에서 활동했다기보다는 서당식 교육에서 비롯된 지·필·묵을 사용한 문자표기에 그쳤을 뿐 이렇다 할 특이할 만한 서예술 창작활동의 진형(眞形)을 보지 못했다.

이 고장 목포는 예부터 찬란한 서예전통의 명맥을 계승할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정치적으로는 조선시대에 많은 정객들의 유배지(진도, 해남 등)로 되어 있었던 탓으로 유배 온 학자 사대부 및 시인들에 의하여 지방 특유의 전통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조선 말기 남종 문인 화와 더불어 서예를 통한 선비 정신의 계승이 가능했던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과거 100년을 전후한 해방이전까지 좋은 서품(書品)의 유작들과 명필가의 활동기록들이 발견되지 못하여 목포서예의 과거를 조명해보는 데 어려움이 많다.

해방 이후 소전 손재형(1902~1981)의 독보적 서예가의 위상으로 전통서예를 개발하는 데 효시가 되어 평보 서희환(1934~1998)이 1967년 국전 특선에 이어 1968년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데 영향을 받아 서서히 정통서예에 관심을 갖는 서예 인구가 1970년대 이후 불어나기 시작했다.

1960년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전북의 남정 최정균(1924~2001)을 초빙하여 청호서예원<sup>01)</sup>이 개원되어 정법서예가 처음 지도되기 시작하였으나 쉽게 폐원되어 아쉬움을 남겼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월파서예원<sup>02)</sup>이 개원하여 월문회전이 매년 개최(1976~1986)되면서 서예에 입문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이 무렵 제주도에서 소암 현중화(1907~1997)가 월1회 목포로 와서 서예를 지도하면서 1981년부터 매년 소묵회전을 개최하였으나 오래가지 못했다.

1976년에 유천 서종견이 유달서예원을 설립하여 수많은 법첩을 계승·보급하기 시작하면서 목포 서단은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으며, 1979년에는 서종견의 제자들 모임인 유묵회가 발족되어 1980년 창립 회원전을 개최한 후 매년 1회씩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1970년대에는 남정 최정균으로부터 사사받은 우하 김정재(1932~1998)가 정통서예를 연마하여 전라남도미술대전에서 연4회 특선과 부문 우수상(1978)을 수상하여 추천작가에 이어 초대작가로 선정되었다. 국전에서는 4회나 입선(1974·1975·1977·1978)하였으며 1979년에 개인전을 개최하여 목포에 신선한 서예의 바람을 일으켰다.

1980년대에도 우하 김정재가 1981년 국전 입선에 이어 1982년 특선을 함으로써 국립현대미술관

01) 상락동 소재, 원장 : 조경철(趙慶哲).

02) 원장 : 월파 김은섭.

초대작가로 선정되어 중앙과 지방에서 중진작가로 활동하면서 목포서단과 중앙서단의 연결고리가 되어 많은 활동을 하였다.

이와 함께 유천 서종견(1980·1982)과 옥정 박한수(1982)가 국전에 입선하였다. 1983년에 옥정 박한수가 옥정서예원을 개원하였고 1985년에 그의 제자들로 구성된 목목회가 발족되어 창립회를 개최한 후 매년 전시회를 하기 시작하였다. 1985년에는 죽전 송홍범이 백제서예원을 개원하여 그의 제자들이 연서회를 조직하여 1987년 창립전을 시작으로 매년 전시회를 열었다. 도제 문병하가 도제서예원을 개원하여 도목회전이 1987년부터 매년 개최되었으며, 당시 신안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하던 우하 김정재도 측후동 자택에서 강수남, 김광숙 등 몇 명의 제자들을 사사하기 시작하였다. 한국미술협회 목포지부회원(서예분과)전이 매년 1회 개최되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서예의 관심을 높여 갔으며 목포에도 서예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1970년대와 1980년대는 목포서예의 태동기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유달서예원 제4회 유목회서예전(목포시민회관 2층 전시실 1983년 10월)

1990년대에는 중앙서단의 많은 변화로 인해 지방서단도 그에 따라 변화 될 수밖에 없었다. 먼저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서예분과에서 하나로 활동하던 서예인들 중 일부가 1990년에 사단법인 한국서예협회를 만들어 독립단체로 창립하였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서예대전을 개최함에 따라 목포의 서예인들도 한국미술협회 목포지부 서예분과 회원들 중에서도 한국서예협회 목포지부를 만들어 유천

서종견을 비롯한 몇 명의 서예인들이 독립해 나갔다. 1993년에 또다시 사단법인 한국서가협회가 창립되어 대한민국 서예전람회를 개최하기 시작했고, 1994년에 사단법인 서예고시협회(현 한국서도협회)가 창립되어 대한민국 서도대전을 개최하였다. 따라서 목포서단도 중앙의 흐름에 따라 한국미술협회, 한국서도협회, 한국서가협회, 한국서도협회 등 각자의 소속단체에서 활동하였다.

1990년대 초반 유천 서종견이 대한민국 서예대전에서 특선하여 초대작가로 선정되었고, 목천 강수남이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입선 2회(1992, 1993)에 이어 특선 2회(1995, 1996)를 하여 국립현대미술관에 작품이 전시되는 영광을 안았다. 1999년에 죽전 송홍범이 대한민국 서예대전 초대작가로 선정되었다.

전라남도미술대전에서는 1990년에 울전 김영찬이 대상을 받아 초대작가가 되었으며, 목천 강수남이 3회(1992, 1994, 1997)의 특선에 이어 1996년에 영광의 대상을 받아 초대작가로 선정되었다.

전국무등미술대전에서는 목천 강수남이 특선 3회(1994, 1995, 1997) 추천작가로 선정되었다. 또 대한민국미술대전 입·특선, 전라남도미술대전 입·특선 및 대상 수상으로 서예작가의 활동과 창작성을 인정받아 1996년에 광주 필진회에서 선정하여 수여하는 송곡서예상과 한국미술협회 목포지부에서 선정하여 수여하는 목포미술인의 상을 수상하였다.

1998년 목포서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서단의 큰 별이었던 우하 김정재가 불의의 사고로 12월 12일 타계하자 서예인들은 큰 슬픔에 잠겼다.<sup>03)</sup> 그러나 이후 1996년부터 목포문화원에서 서예를 지도하던 목천 강수남이 1999년에 목포 유달동에 목천서예연구원을 개원하여 스승의 필법을 전수하기 시작하면서 목포의 서맥을 이어갔다.

1990년대도 한국미술협회 목포지부전(서예분과)은 변함없이 계속 되었고, 한국서예협회 지부전은 199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유천서예원의 유묵회도 매년 빠지지 않고 개최되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서예 인구의 감소로 백제서예원의 연서회전, 도제서예원의 도묵회전, 옥정서예원의 묵묵회전 등이 회원 수의 감소로 폐전(閉展)하는 아쉬움을 남겼으며 서예학원들도 운영의 어려움으로 문을 닫기 시작하였다. 1991년부터 격년제로 개최해 오던 우하 김정재의 제자들의 모임인 청묵회전 또한 스승의 타계로 1999년 우하 김정재 선생의 추모전을 끝으로 해체되고 말았다.

2000년대에도 한국미술협회 목포지부전(서예분과), 한국서예협회 목포지부전은 매년 계속되었다. 2006년에 유천 서종견의 고회전이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으며, 목천 강수남은 2002년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부스전을 시작으로 2004년과 2009년에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인

03) 우하 김정재에 관한 기록은 『목포시사』4(터전 목포), 「주요 인물」편에 기록하기로 한다.



전을 가졌고, 2017년에는 전라남도 문화상(2016년) 수상기념으로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1990년대에 이어 2000년대에도 매년 국제서법 한·중교류전에 참가하여 중국 각 지역의 작가들과 교류전을 지속적으로 이어 왔다. 죽전 송홍범은 3회(2000, 2002, 2004)의 개인전시를 개최하였고 2007년에 국제서법 쌍년전에도 참가하였다. 유달서예원의 유묵회전은 매년 계속되었으나 유천 서종건의 열정과 노력에도 어쩔 수 없는 회원 수의 감소로 제29회(2009)로 막을 내려 이 지역 서예인들에게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다행하게도 1998년에 타계한 우하 김정재의 서맥을 이어 받아 목천 강수남이 목천서예연구원을 개원하고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서예전담 교수로 활동하면서 제자들의 모임인 필묵회를 창립하여 필묵회전을 2007년에 첫 전시회를 시작으로 매년 전시회를 함으로써 이 지역의 서맥을 이어가면서 침체기에 빠져드는 목포서단의 활력을 불어 넣었다.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목천 강수남이 3번째의 특선(2004)으로 초대작가가 되어 2006년에 심사위원으로 위촉받아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동안의 목포지역 서예가로서의 활동과 작품성을 인정받아 고 우하 김정재가 사재를 출연하고 한국예총 목포지부가 운영하는 우하예술문화상을 수상하였다. 한술 김광숙이 특선(2006), 상허 김성준(2004), 현초 김형국(2006) 입선 하였다.

대한민국서예대전에서는 유천 서종건, 죽전 송홍범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받아 활동하였다. 청곡 주은일(2009)과 상허 김성준(2002, 2006)이 특선, 운흥 김성만(2004), 현곡 한규철(2006, 2008), 상허 김성준(2004), 소산 임인택(2006, 2007) 등이 입선하였다.

대한민국서예전람회에서는 청정 이종연이 입·특선에 이어 우수상(2004)을 수상하여 초대작가로 선정되었고 일석 이재승 또한 입선 4회, 특선 2회로 초대작가가 되었다.

전라남도미술대전에서는 목천 강수남이 운영위원·심사위원으로 유천 서종건, 죽전 송홍범, 한술 김광숙, 울전 김영찬 등이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목포서단의 후배 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일석 이재승이 특선(2002, 2003)에 이어 2004년 대상을 수상하면서 추천작가로 선정되어 심사위원에 위촉되었다. 죽농 임용운은 특선 4회(2005, 2006, 2007, 2008)로 추천작가가 되었다. 가원 이춘금(2007, 2008, 2009), 소정 김은선(2008, 2009), 청봉 이명환(2008, 2009), 해림 전남철(2009) 등이 특선, 덕용 강시원, 상허 김성준이 추천작가를 거쳐 초대작가로 선정되었다.

전국무등미술대전에서는 목천 강수남이 운영위원·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장현 정정석, 덕용 강시원이 초대작가로 선정되었다. 죽농 임용운(2005, 2006, 2007, 2008), 가원 이춘금(2005, 2006, 2008, 2009), 소정 김은선(2006, 2008, 2009) 등이 특선하여 추천작가로 선정되었다.

대한민국서예문인화대전에서는 목천 강수남이 운영위원·심사위원장으로 활동하여 이 지역 작가들의 중앙 진출에 큰 힘이 되었다. 소정 김은선(2008), 죽농 임용운(2009)이 우수상을 수상하여 초대작가가 되었다. 해림 전남철(2009), 가원 이춘금(2006)이 삼체상을 수상하여 초대작가가 되었다.

회강 전영현(2008, 2009), 심산 이점신(2009), 운강 박미선(2009), 소식 안승환(2009), 벽강 양근영(2012)이 특선하였다.

2006년부터 이 지역 목포에서 개최하기 시작한 남농미술대전에서는 유천 서종견, 목천 강수남, 일석 이재승, 한솔 김광숙 등이 운영위원·심사위원으로 위촉받아 목포 서예인들을 위하여 힘을 쏟았다. 죽농 임용운(2007, 2008, 2009), 소정 김은선(2007, 2008, 2009), 해림 전남철(2008, 2009), 가원 이춘금(2007, 2009), 운강 박미선(2009), 회강 전영현(2008)이 특선하여 이 지역 서예인들의 자존심을 살리고 실력을 대외에 과시하였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목포서단에도 새로운 신진 작가들이 탄생하기 시작하여 기존 작가들과 더불어 활발한 활동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전체적인 서예 인구는 1990년대에 비하면 감소되었으나 작가 개인의 서법탐구의 노력은 변함없이 계속되었다.

한국미술협회 목포지부전(서예분과)과 한국서예협회 목포지부전은 매년 빠짐없이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매년 개최되고 있는 목천서예연구원의 필묵회서예전이 해를 거듭할수록 회원 수가 늘어나고 그 기량도 향상되어 2016년에는 목포문화예술회관 1층 전관에서 제10회 필묵회서예전 겸 김포시와의 교류전을 65명의 서예가들이 참여하여 목포시민들은 물론이고 경기도 김포시민들에게도 목포서예가들(필묵회원)의 활동을 알리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2010년대에는 감소하는 서예인구에 비해 작가 개인의 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2012년에 유천 서종견의 희수전이 오거리 문화센터에서 열렸으며, 전라남도에서 수여하는 전라남도문화상(2012)을 수상하여 수상기념 초대전(2013)이 곡성문화원에서 개최되었다.



그림 2 제10회 필묵회서예전 개전식(목포문화예술회관 2016년 10월 28일)



죽전 송홍범의 개인전(2010, 2012, 2015)과 상허 김성준의 개인전(2012, 2015)이 있었다. 청인 서거라의 개인전 (2010, 2013, 2014)이 목포문화예술회관, 전남도립도서관, 광주대학교 문화예술대학 아트홀에서 있었다. 가원 이춘금의 개인전(2013)이 목포문화예술회관과 전남도립도서관, 유암 정성모·명원 조미령의 부부서예전(2015)이 목포문화예술회관, 죽농 임용운의 개인전(2016)이 목포문화예술회관과 영광예술의전당에서 있었다.

목천 강수남은 1991년 창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한해도 빠짐없이 국제서법한국본부 호남분회에서 운영하는 한·중서법교류전에 참여하여 국내 각 지역 작가들은 물론이고 중국의 각 지역의 작가들과 교류전을 해오고 있다. 또 동남아순회전과 일본가고시마전 등에 참여하여 활발한 서예 활동을 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일석 이재승도 참여하였다.

목천 강수남이 대한민국 서예문인화대전 운영위원회에서 수여하는 한국예술문화상 수상(2013)과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에서 수여하는 예총예술문화공로상을 수상(2015)하였으며 2016년에는 전라남도에서 수여하는 전라남도문화상을 수상(2016)하였다.

2010년에 들어 목포지역 작가들의 각종 공모전에서도 그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예향목포의 위상을 높이는데 공헌하였다.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는 가원 이춘금이 입선(2013, 2015)과 특선(2016) 소정 김은선이 특선(2017), 윤강 박미선이 특선(2017), 연파 문형찬이 특선(2017)을 수상하였다. 상허 김성준, 현암 한국진, 여해 김명리, 여천 김영란, 아정 장미숙 등이 입선하였다. 대한민국서예대전에서는 죽전 송홍범(2010), 덕용 강시원(2014)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청인 서거라가 특선(2014)하여 초대작가가 되었고 현초 김호민(2014)도 특선을 하였다. 만허 김우숙(2011, 2014), 운흥 김성만(2014), 현곡 한규철(2014), 상허 김성준(2011), 소산 임인택(2010, 2011, 2014, 2015), 우산 허수영(2014), 송계 정재한(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등이 입선하였다.

대한민국서도대전에서는 목천 강수남이 목포지부장으로 선임(2014)되었다. 죽농 임용운, 해림 전남철, 가원 이춘금, 윤강 박미선, 소정 김은선이 초대작가로 선정되어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2016대한민국서도대전 초대작가전에 참가하였다. 대한민국서예전람회에서는 우산 허수영이 초대작가(2013)로 선정되었다. 전라남도미술대전에서는 목천 강수남(2012, 2015), 덕용 강시원(2011), 일석 이재승(2016)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소정 김은선이 대상을 수상(2011)하였다. 죽농 임용운(2014), 가원 이춘금(2014), 해림 전남철(2016), 소정 김은선(2016)이 초대작가로 지정되어 심사위원에 위촉되었다. 윤강 박미선, 심산 이점신, 청림 우종숙, 여해 김명리, 담운 이정근, 인산 손동철, 청곡 주은일, 운흥 김성만, 상허 김성준, 청봉 이명환, 노산 임인택, 우산 허수영, 청인 서거라 등이 추천작가가 되었다. 송재 조창익(2010, 2011), 소석 안승환(2012, 2013), 벽강

양근영(2015, 2016), 동춘 박종덕(2014, 2015, 2016), 유암 정성모(2014, 2015, 2016), 명원 조미령(2014, 2015, 2016), 아정 장미숙(2015), 현암 한국진(2016), 여천 김영란(2015, 2016) 등이 특선하였다.

전국무등미술대전에서는 목천 강수남이 운영위원·심사위원에 위촉되어 활동하였다. 운강 박미선이 대상을 수상(2011)하여 추천작가가 되었다. 장헌 정정석, 덕용 강시원, 죽농 임용운, 가원 이춘금, 소정 김은선이 초대작가가 되었다. 죽농 임용운, 가원 이춘금, 소정 김은선, 운강 박미선, 해림 전남철이 새로운 심사위원으로 위촉받아 목포 서단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여천 김영란이 우수상을 수상(2015)하였다. 청림 우종숙, 심산 이점신, 우산 허수영 등이 추천작가가 되었다. 담운 이정근(2013, 2014, 2015), 유암 정성모(2014, 2015, 2016), 여혜 김명리(2014, 2015, 2016), 동춘 박종덕(2014, 2015, 2016), 소식 안승환(2011, 2013, 2016), 현암 한국진(2016), 우연 정경면(2016), 인산 손동철(2015, 2016), 벽강 양근영(2014, 2015) 등이 특선하였다.

대한민국서예문인화대전에서는 목천 강수남이 운영위원·심사위원장으로 위촉받아 활동하였다. 운강 박미선이 대상을 수상(2011)하였다. 송재 조창익(2012), 여천 김영란이 우수상을 수상(2014)하였다. 소식 안승환(2010), 담운 이정근(2011), 여혜 김명리(2012), 인산 손동철(2012), 유암 정성모(2015) 등이 삼체상을 수상하였다. 현암 한국진 은상 수상(2015), 경암 강상곤 금상 수상(2016), 벽강 양근영(2012, 2013, 2014)이 특선으로 초대작가가 되었다. 우연 정경면(2014, 2015, 2016), 청파 정왕범(2016) 등이 특선하였다.

대한민국남농미술대전에서는 목천 강수남, 한솔 김광숙, 유천 서종건, 일석 이재승 등이 운영위원·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가원 이춘금(2010)과 청림 우종숙(2012)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여천 김영란(2014), 명원 조미령(2016)이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우산 허수영, 담운 이정근, 유암 정성모, 운강 박미선, 해림 전남철, 소정 김은선, 여혜 김명리, 심산 이점신, 동춘 박종덕, 죽농 임용운, 인산 손동철, 벽강 양근영 등이 초대작가가 되었다. 이 중 죽농 임용운과 해림 전남철은 운영위원·심사위원으로, 가원 이춘금, 소정 김은선, 운강 박미선, 청림 우종숙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끝으로 지금까지 목포 서예사를 요약해 보면 오늘의 목포 서예는 1960~1970년대의 소전 손재형과 남정 최정균의 영향을 받아 평보 서희환과 우하 김정재가 탄생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유천 서종건의 지도 덕택으로 제자들인 유목회원들의 많은 활동이 있었다. 2000년대 들어 목천 강수남의 서법지도력으로 이끌어가는 필목회원들이 목포의 서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서예란 말 그대로 문자를 미적으로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본다면 그림에서 구상과 비구상이 있듯이, 서예도 문자의 본질인 의사전달의 수단을 지켜가며 미적표현을 하는 정통서예와 문자를 비구상 형태로

표현하는 현대서예가 있는데, 더러는 현대서예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비구상서예라고 표현하는 의견들도 많다. 아무튼 목포서단의 대부분의 서예가들은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정통서예를 하고 있는 작가들이 대부분이나 몇 명의 서예가들은 비구상 즉, 현대 서예장르에서 활동하며 모험적인 창작활동으로 나름대로의 새로운 미를 개척하는 서예가들도 있다.

표 1 1979년~2017년 목포 서예계의 개인전 및 단체전 현황

개인전(서예)			
전시명	기간	장소	참고
각재 신주용 서예전	1979. 04. 19.~04. 24.	황실다방(명륜동)	사법서사
일정 정우종전	1980년대 초	밀물다방(무안동)	여수인
각암 정재현 서예전	1980년대 초	밀물다방(무안동)	목포남교동 거주, 경북 상주(1900년 출생)
우당 김경인 서예전	1981. 03. 16.~03. 22.	중앙다방(죽동)	국회의원(전), 신안(1923년 출생)
벽강 서예전	1981. 10. 13.~10. 19.	황실다방(명륜동)	남농 초청전
성촌 김갑 서전	1984. 06. 13.~06. 19.	중소기업은행 3층	여수인(1923년 출생), 음악전공, 교육자(제일여고 교장)
우하 김정재 서전	1986. 06. 26.~07. 02.	황실다방(명륜동)	대한민국 서예대전(미협) 초대작가
정악 박봉석 서예전	1986. 10. 23.~10. 29.	황실다방(명륜동)	채육인
백소 최진렬 서예작품전	1988. 05. 18.~05. 24.	단원미술관(복만동)	무용전문, 목포예총지부장
유천 서종견 서전	1996. 08. 30.~09. 03. 2005. 05. 13.~05. 17. 2012	MBC문화방송전사실 목포문화예술회관 오거리문화센터	대한민국 서예대전(서협) 초대작가
죽전 송홍범 서전			대한민국 서예대전(서협) 초대작가
목천 강수남 서전	2004. 12. 02.~12. 07. 2009. 12. 11.~12. 16. 2017. 12. 22.~12. 27.	목포문화예술회관	대한민국 미술대전(미협) 초대작가
상허 김성준 서전			대한민국 서예대전(서협) 초대작가
청인 서거라 서전	2009 2010 2012 2014	목포문화예술회관 전남도립도서관 남도화랑	대한민국 서예대전(서협) 초대작가
가원 이춘금 서전	2013. 04. 12.~04. 18. 2013. 04. 19.~04. 23.	목포문화예술회관 전남도립도서관 남도화랑	대한민국 서도대전(서도협) 초대작가
유암 정성모·명원 조미령 부부서전	2015. 10. 30.~11. 04.	목포문화예술회관	목포코렐 재직
죽농 임용운 서전	2016. 07. 22.~07. 27. 2016. 07. 29.~08. 03.	목포문화예술회관 영광 예술의 전당	대한민국 서도대전(서도협) 초대작가 교육자(삼학초 교장)

단체전(서예)			
전시명	기간	회 원 수(2017년현재)	참고
한국미협 목포지부전	1965년~매년	22명	서예분과참가
한국서협 목포지부전	1991년~매년	35명	한국서예협회 목포지부
월문회원전	1976년~1986년		월파서예원
유목회원전	1980년~2009년		유천서예원
소목회전	1981년~		소암 현충화선생 지도
목목회전	1986년~1994년		옥정서예원
백제연서회전	1987년		백제서예원
도목회전	1987년~1993년		도제서예원
청목회전	1991년~1999년		우하 김정재선생 지도
남목회전	1995년		동방서예원
서연회전	1994년		목포서예인연합회
목우회전	1994년		동양서예원
목해전	2004년	77명	박영도서예원
필목회전	2007년~매년		목천서예연구원

지금까지의 기록은 1970~1980년의 목포 서예에 관한 기록을 『개항100주년 목포미술전』에 수록된 유천 서종견의 서예사 기록을 참고하였으며,<sup>04)</sup> 그 이후의 기록은 목포에서 활동 중인 4단체(한국미술협회 목포지부 서예분과, 한국서예협회 목포지부, 한국서도협회 목포지부, 한국서가협회 목포지부) 대표들을 통하여 수합한 각 개인의 자료를 토대로 하였고, 공모전의 기록도 수많은 공모전을 다 기록할 수 없어 공신력과 객관성 등을 고려하여 4단체 대표들과 합의하여 선정된 단체의 공모전만 기록하게 되었다. 각 단체의 활동 상황을 일일이 다 기록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여기까지 밖에 할 수가 없었던 점 서예인들이 이해하리라 생각하며 그 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누락된 분들은 활동기록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기록하지 못하였음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강수남 | (사)한국미술협회 이사

04) 서종견, 「목포서예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바라보며」, 『목포개항100주년 미술기념전』, 목포백년회, 1997.

## 제4절 목포 사진계의 흐름과 활동

사진이 19세기에 세상에 처음 알려지게 되면서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최근까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목포에서 처음 진보된 사진술이 유입되기 시작한 시기는 일제강점기 때였다. 그 당시는 일본에서 직접 사진술을 배운 사람들과 일본인이 개업한 사진관에선 조수로 일하던 사람들이 이미 사진술을 습득하고 있던 시기이다. 해방이 되었을 때 일본인들이 떠나면서 사진관을 맡겼거나 적산가옥을 불하받아 개업을 했던 사람들도 상당수 포함된다.

당시 목포는 1897년 10월 1일 개항과 함께 서서히 외래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일본인들에 의해 하나 둘 사진관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1910년대 목포에서 운영한 사진관은 미라다이사진관(오거리 유달의원이 있었던 자리), 야마모토사진관(일본 영사관 건너편 현대여관이 있었던 자리), 오에 사진관(목포사진관), 마쓰모토사진관, 시바다사진관 등이 있었다. 주로 일본인들이 경영을 했고 한국인들은 대부분 일본인이 경영할 때 그들 밑에서 기술을 배우고 있었다. 광종선(郭鍾善, 1910~1950)의 OK사진관은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곳으로써 사진 기술이 좋기로 유명하였다. 광종선은 당시 일본 오리엔탈사진학원을 졸업하고 일본인들도 그 기술을 따라 갈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목포에서 처음 사진예술이란 장르를 탄생시킨 사람이기도 하다. 당시에도 미인 선발이 있었는데 요즘처럼 무대 위에서 미를 평가 받는 것이 아닌 사진으로 평가를 하였다. 광종선이 찍은 김영희가 미인으로 뽑힌 일이 있었다니 당시의 목포 사진계에서 월등한 실력의 사진술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해방 이후에도 목포에서 사진 영업을 한 사진관을 보면 장봉규(삼천리사진관 자리 임마뉴엘교회 뒤), 정규봉(처음 일본인 도라오에게 사진술을 배우고 다시 광종선 문하에서 사진술뿐 아니라 사진예술에 대한 인식을 배운 후 목포극장 앞에서 조광사진관을 하다가 다시 무안동 평화극장 앞에서 천연당이란 사진 재료점 겸 사진관 경영), 김병준(연극인 김길호의 부친으로 남교동 고려사진관 자리에 대창사진관 경영), 박병길의 신명사진관(무안농협 앞), 조남기의 목포사진관(일본인이 경영했던 오에사진관을 인수, 잠시 쉬고 있었던 광종선을 초빙해 영업을 하다가 목포사진관을 운영), 주창언의 경제사진관 경영 후에 사진관 겸 음식점 운영(만주 봉천에서 세계 사진콘테스트에서 특선을 한 일본인 야마모토 문하에서 사진술을 배움), 노봉기 고려사진관, 최재기 전 고려사진관 자리 제일사진관, 이기재의 송도사진관, 김형태의 고향사진관, 박종석의 삼천리사진관(광종선에게 사진을 배움), 등이 있으며 김호중의 미영사(사진재료점), 김방현의 문화사 경영 등이다. 이들이 초창기 목포에 사진문화를 발전시킨 사람들이다.



이렇게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 근래까지 목포에서 사진관을 운영했던 사람들은 사진예술이란 개념 보다 영업사진에 몰두하고 있었고, 사진예술이란 본격적인 장르가 탄생한 계기는 한참 이후의 일이다. 일제강점기부터 해방이 되고 6·25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문화적 토양을 쌓았지만 이미 그들은 노령으로 2선으로 물러가 폐업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정적인 이유는 디지털시대의 개막으로 종래의 아날로그식 기법으로는 현실적인 문제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데 있었다.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현상소 개념의 사진문화가 인식되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목포 사진예술의 발전은 개인에서 단체라는 구성원들의 모임을 통해서 활발한 교류와 연구를 하면서 대중성이 있는 전시공간으로 대세를 넓혀간 것이다. 물론 전시공간은 전문적인 공간이 전무했던 목포에서는 거의 다방전시가 대부분이었다. 지금까지의 인상사진에서 대중에게 보일 수 있는 평면 공간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발전이 아닐 수 없었다.

초기에 목포사진은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그러했듯이 백일사진, 돌 사진, 결혼사진, 회갑사진, 기념사진 등 인물사진을 찍는 것으로 인식된 사진의 개념이 대부분이었다. 차츰 휴대용 카메라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일반인들이 필름으로 직접 사진을 찍어 오면 그 필름을 현상해서 사진을 프린트 해 주는 DPE(Development, Printing, Enlarging)점이란 현상소가 생겨나면서 대중화되었다.

또한 사진재료점이나 현상소에서 필름을 사고 카메라를 빌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 사진을 대중에게 확산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처럼 사진이 대중화 되고 그 폭이 넓어지면서 이미지(Image) 영상이라는 새로운 예술 방식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물론 일제강점기에도 일본인들 보다 더 우수한 광중선 같은 사진가도 있었지만 1953년 목포사진예술연구회라는 단체가 창립되면서 사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목포 지역에 예술동인들이 개개인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목포문화협회라는 단체가 결성된다. 사진 예술연구회는 목포문화협회에 소속돼 사진 분과로 활동하였다. 1962년 모든 예술문화단체를 통합하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라는 전국의 예술문화단체가 창립되었다. 목포문화협회가 사단법인 단체인 한국예총으로 바뀌고 목포문화협회 사진분과 역시 사단법인 한국사진협회 목포지부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목포에 사진협회라는 단체가 생겨났지만 사회 여건은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사진을 하려면 카메라가 있어야함은 당연한 일인데 당시 일상생활에서 카메라를 가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사진의 대중화를 기대할 수 없었지만 사진예술에 관심이 있는 몇몇 인사들이 규합해서 사진단체를 창립함으로써 그동안의 공백기를 종식시키는 계기가 된다.

목포 지역에서 발생한 아마추어 사진단체들을 보면 목포유달사우회(1972~2004, 박선순), 목포 사예클럽(1977~2004, 박정환), 목포정명사진클럽(1980~2006, 임병일), 목포사우회(1982~현재,

윤홍진), 비파사우회(1983~2007, 하인택), 포토아이(1988~현재, 오신재), 씨드아이(1990~1993, 김은순), 마인드아이(1991~2005, 김정식), 심상사진연구회(1992~2015, 정선식), 영산강클럽(1995~1998, 주봉찬), 송림캠퍼스포토클럽(1999~2011, 김은순), 목포파노라마회(2008~현재, 이연이), 목포해양포토클럽(2009~현재, 김병안), 심미포토·환경사진모임 밝음이(2009~현재) 등이 창립을 해서 활동을 했다.

이렇게 사진단체들이 잇따라 생겨났지만 30년 이상 단체를 유지했던 유달사우회를 비롯하여 몇몇 단체들은 모두 해체되고 말았다. 이는 아날로그 타입에서 디지털사진의 급진적 보급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저렴하고 편리한 디지털카메라의 빠른 보급으로 사진을 찍은 즉시 전송, 저장하는 등 눈부신 발전이 거듭되었다. 따라서 예전처럼 사진관이나 현상소에서 사진을 뽑아 앨범에 붙이는 추억은 사라지고 컴퓨터만 있으면 누구나 많은 수량을 저장하고 전송하며 또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게 되었다. 편리한 세상이 됐으나 예전처럼 사진을 찍어 현상소에 맡기고 설레도록 기다리던 일은 옛 이야기로 되어버렸다.

목포는 개항이 되면서 수출에 의한 경제적 부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의 접촉은 타지역보다 월등하게 빨랐다. 따라서 목포 사진문화도 타지역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며 선구적 위치를 차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목포에서 시작된 사진단체의 창립과 문화의 변천을 연대순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1950년대 발아기

당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사진의 개념은 주로 얼굴을 찍는 인상사진이 대부분이었다. 인상사진은 당시의 도민증이나 신분증 등의 증명 사진, 백일 사진, 돌 사진, 결혼, 회갑, 졸업 사진 등 이었다. 만주 봉천 등지에서 사진술을 배운 사람들이 적산가옥을 불하받아 영업을 하는 당시에도 사진의 인식은 변하지 않았다. 6·25전쟁 이후 UN군이 들어오면서 서적 등을 통해 사진이 실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소형카메라를 통해서 실외에서 자연광으로 인물이나 풍경 등을 찍을 수 있다는 인식으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된 움직임이 일기 시작한 6·25전쟁 직후부터 1960년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 시기를 목포에서 사진문화가 싹트기 시작한 발아기로 볼 수 있다.

1953년 4월 5일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목포사진예술연구회가 탄생한다. 모임을 주선했던 이승모(李承模)가 초대 회장이 되면서 새로운 사진단체가 세상에 알려졌다.

6·25전쟁 이후 사회가 차츰 안정되기 시작하고 있을 때 목포에 주둔하고 있었던 해군경비부 정훈실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여러 가지 사회적 배려를 하고 있을 때여서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처음으로 사진단체에 동참한 사람으로는 초대회장 이승모(李承模)를 비롯해서 이영원(李永院, 1919~2011), 정영진(鄭永鎭), 유승열(劉承烈), 천우복(千友福) 등인데 당시 사회적 정서로 볼 때 사진 동우회의 창립은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sup>01)</sup>

목포사진예술연구회를 계기로 1953년부터 1960년까지의 사진과 관련한 많은 행사들이 있었다. 이승모를 비롯한 이영원, 김홍인(金洪仁), 조남기(趙南基) 등의 개인전은 회화나 서예 등의 전유물처럼 인식된 당시 사회에서 사진으로 개인전을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에도 이영원은 4회의 개인전과 조남기 3회, 김홍인 2회 등의 개인전을 비롯하여 1954년 제1회 회원 사진전을 시작으로 매년 목포사진예술연구회가 회원전을 열었다. 열악한 환경과 카메라의 보급이 원활하지 못했을 당시의 사진작품 전시는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초창기 목포 사진계의 동향을 주요 행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1954년은 이승모가 7월 5일부터 7일까지 수양다방에서 19점의 작품으로 첫 개인전을 열어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잇따라 10월 9일~13일 남가다방에서 목포사진예술연구회의 회원전이 열렸다. 이 무렵은 예술사진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을 때라 일반인들과 문화계 인사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 외국의 유명 사진작가전이 목포에서 열려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세계 저명 사진작가 작품전(Wold famous photographers photo Exhibtion)'에서 앙리 까르디에 브레송을 비롯하여 세계 11개국, 25명의 작가전이 열렸다.

제2회 목포사진예술연구회 회원전이 1955년 1월 30일~2월 3일 남가다방에서 열렸다. 이 전시에는 심창섭, 이영원, 마성준, 김홍인, 정영진, 현완석, 김정인(전 국회의원), 김기혁, 이승모 등이 출품을 하였다. 1955년에도 '세계 저명 사진작가 칼라사진 작품전'이 5월 5일~15일 남가다방에서 열렸는데 당시의 사진은 흑백 은염사진(銀鹽寫眞)이 대부분이었는데 천연색사진(天然色寫眞)이라는 컬러(Color)사진이 출연하여 놀라움을 주었다. 한편 1955년 3월 1일~5일 남가다방에서 열린 3·1절 기념미술전은 최초로 사진 외에 서양화, 동양화와 함께 전시를 하는 등 개방적 표현 방식을 선보였다. 이는 다른 장르의 작품을 함께 전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

또한 김홍인과 이영원의 제주도 풍물사진 2인전이 열리기도 했다. 당시 김홍인은 목포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지내면서 사진 활동을 하다가 훗날 광주로 옮겨 활동했다. 이영원은 일본에서 서양화를 배워 1946년 측후동 2번지 일제 때 홍간지 절터의 적산가옥을 불하받았고, 1930년대 일본에서 서양화를 배운 사람들의 모임인 목포미술원 창립회원이었다. 사진술을 배운 후에 무안동 코롬방제과점 옆

01) 이승모는 당시 토건업을 하고 있었는데 1954년 첫 개인전 이후로 이리(익산)철도청 광성회(현 흥익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1975년 이리 사우회(익산사진협회 전신)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을 지내면서 익산, 전주 등지에서 개인전을 하는 등 사진에 대한 선구자적 역할을 한 사람이다((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전북지부, 『익산사진사』, 익산사진협회, 1989, 274쪽).

에 모던사진관 겸 예식장을 경영하다가 광주로 이주했다. 1956년 3월 김홍인의 「서귀포」와 이영원의 「해녀」 두 작품이 국제 화보전에서 입선하기도 했다.

1955년 7월 26일에는 목포지역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던 영업사진가들이 대한사진가연합회 목포 분회를 결성하여 초대 분회장에는 목포사진관의 조남기, 부분회장에는 박남수(朴南守), 총무에는 이기재(李基在), 조직부장에 박홍완(朴洪完)을 선출하였다.

1956년에 들어서는 개인전과 단체전이 있었는데, 6월 9일~18일 제2회 이영원사진전이 새마을다방에서 열렸으며, 제3회 목포사진예술연구회 회원전이 11월 8일~14일 새마을다방에서 열렸다. 정영진, 김홍인, 강동문(서양화가), 김기혁, 김원상, 김승곤, 서준석, 이영원, 문형식, 김일곤, 조동철 등이 출품을 했는데 기존보다 회원이 확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해에는 무엇보다 목포 최초의 사진촬영대회라는 큰 사건이 있었다. ‘제1회 해군참모총장각하 초도순시 및 해군군악대 연주, 의장대 시범 공개기록 촬영대회’라는 긴 명칭의 촬영대회 입상작품전이 12월 9일~18일 청호다방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해군 경비부 정훈실의 협조로 이루어졌다.

1957년에는 목포사진예술연구회의 임원개편이 있었다. 이승모 회장이 타지역으로 옮김에 따라 회장에 이승원, 부회장 이영원, 총무 김준곤으로 개편됐다. 11월 25일에는 목포 최초의 직장 사진클럽인 남전사우회가 발족하였다. 남전사우회는 남선전기(현 한국전력) 직원들의 동호회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김상육(金相六)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10월 26일~11월 2일은 김홍인이 새마을다방에서 개인전을 열었는데 목포의 풍물 등 목포 이미지를 담은 작품이었다. 당시는 사진의 소재가 리얼리즘(Realism)이라는 장르를 표방하던 시대였는데, 목포라는 한 지역의 풍물을 담은 자신의 세계관을 보임으로서 기록과 표현이라는 의미의 작품을 내놓았다. 12월 20일~24일은 제1회 조남기사진전이 청호다실에서 열렸다.

1958년 1월 4일~10일 목포사진예술연구회 네 번째 회원전이 새마을다방에서 열렸다. 여기에 이승원, 서승규, 강오석, 김상문, 서준석, 장춘기 정동권, 서태환, 강동문, 김기혁, 이영원, 김홍인 등이 출품했다. 그 해 사진과 수채화의 만남전이 있었는데 사진에 오종태, 수채화에 배동신 2인전이 5월 22일~28일 오거리다방에서 열렸다. 수채화와 사진이 함께 전시를 하는 일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다방가에 소문이 무성했다. 사진을 비롯한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하고 있을 때 9월 1일 소청 조희관이 타계하여 영결식에 모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예술문화인의 단체를 만들자는 의견을 모았다. 목포문화협회를 창립하고 목포사진예술연구회는 목포문화협회 소속으로 편입된다. 제3회 이영원사진전이 10월 29일~11월 5일 가고파다방에서 열렸다. 이 전시는 목포사진예술연구회가 주최한 것으로 그 무렵은 예술계에서 사진의 존재가 차츰 넓어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무렵 색다른 전시회가 열렸다. 즉 정부 수립 10주년 기념 제1회 동식물 생태사진 공모전에 이영원이 입선하였는데 이 전시

는 12월 10일~16일 서울 화신백화점 화랑에서 열렸다. 12월 22일~27일 조남기사진전이 가고파다방에서 열렸는데 이 전시도 목포사진예술연구회가 주최하였다.

1959년에는 제4회 이영원사진전이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길다방에서 열렸다. 전시 다음 날인 11월 28일 길다방에서 이영원 사진작품에 대한 사평회(寫評會)가 목포문화협회 주관으로 열렸다. 더불어 문학, 미술, 사진 등 각계의 문화 예술계 인사들이 모여 사진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의견을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없었던 고무적인 일로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사평회는 목포에서 최초의 일이었다. 제5회 목포사진예술연구회 회원전이 동년 11월 1일~10일까지 새마을다방에서 열렸는데 조남기, 김상육, 김기혁, 김익봉, 이승원, 김준곤, 김홍인, 이영원 등 8명이 30점을 출품하였다. 여기서부터 조남기, 김상육, 김준곤 등 새로운 회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제1회 목포예술제 행사의 일환으로 참여하였으며 회원 중 김준곤(金浚坤)은 치과의사로 학술적인 사진연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60년에는 '학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은 제1회 김상육사진전이 4월 20일~27일 나나다방에서 열렸다. 김상육은 주로 백로를 소재로 한 사진을 남겼다. 3회째 열린 조남기천연색사진전은 동년 12월 1일~7일 나나다방에서 열렸는데 지금까지 사진의 발색은 흑백 은염사진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컬러사진을 선보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단한 호응을 얻었다. 당시는 영화도 흑백영화에서 천연색 시네마스코프라는 영화가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라 천연색이라는 사진 전시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1959년 경 서울의 전창순이 대한사진가연합회에서 컬러사진에 대한 강의를 함으로써 컬러사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사진 재료도 구하기 어려워 미군부대에서 소량의 재료를 구입해야 했고, 그나마 유효기간이 지나 변질된 것이 많아 어려움이 많았을 때 등장한 컬러사진 전시회는 특별한 수밖에 없었다. 전시 후에 대구, 진주 등지에서 초대를 받아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제6회 목포사진예술연구회 회원전이 동년 12월 1일~11일 제2회 목포예술제 행사 일환으로 밀물다방에서 열렸다. 조남기, 김기혁, 김준곤, 김상육, 이승원, 서준석, 김홍인 등이 출품했다. 제1회 현상사진 응모전 입상 작품전이 제2회 목포예술제 행사 기간에 함께 열렸는데 최초의 사진 공모전이란 명제로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누어 응모토록 한 작품전이다. 이 행사는 동년 12월 3일~11일 일반부는 양지다방에서, 학생부는 카나리아다방에서 각각 전시됐다. 일반인들이 사진기를 갖고 있기 어려운 때 학생들까지 동참하게 한 것은 대단한 성과였다.

1960년까지 목포의 사진은 인상사진에서 자연 소재의 실험적 요소와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와 토론 등을 나누는 시기였다.



## 2. 1960년대 성장기

일제강점기의 문화적 잔재가 남아 있었던 시기에 독자적 발상의 사진문화의 발전은 큰 의미가 있었다. 특히 최초의 사진단체의 창립과 목포뿐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로 할 수 있는 사진촬영대회와 사진공모전 그리고 외국의 작품들을 통해서 고정 관념적 시각을 바꿀 수 있는 국제교류전의 초대전시 등 사진문화의 발전에 큰 획을 그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또한 목포문화협회 창립으로 지역의 작은 예술가들이 단체를 만들고 협회로 소속되면서 상호 친목과 창작의 교류 등 창의적인 단체의 출발은 작은 지역의 예술적 분위기를 높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도 개인 활동이 활발하여 개인전을 통해서 사진을 많이 이해하기도 했다. 1960년대 김상욱과 조남기의 개인전에 이어 이괘문(李掛門)사진전(1965년 6월 19일~23일), 구왕삼(具王三)사진전(1966년 6월 28일~7월 3일), 현일영(玄一榮)사진전(1964년 11월 20일~22일), 박동호(朴東鎬)의 개인전(1970년 5월 10일~16일, 완도) 등이 있었다. 그중 주목할 만한 것은 설창수, 박근식의 시사진전(詩寫眞展)이다. 1965년 5월 13일~18일에 있었던 ‘시와 사진이 있는 시실(詩室)에서의 초대’란 시사진전이다. 지금까지 시와 그림을 통한 시화전은 있었지만 사진과 시를 묶어 시사진을 전시한 예는 없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이다. 이처럼 사진은 단순한 전시 외에 다른 장르와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방법을 보인 것이다.

활발한 개인전과 1962년 목포사진예술연구회가 한국사진협회 목포지부로 재편된 일 외에 이 시기에는 몇 가지 두드러진 변화가 있었다. 첫째는 흑백사진에서 컬러사진으로 변화를 거듭했고, 둘째는 지역과 중앙 사단에서 전국공모전을 통해서 사진작가의 등용문을 넓혔다. 셋째는 사진촬영대회나 전국규모의 사진전을 통해서 그 규모가 크게 향상되어 사진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의 저변확대로 사진인구가 팽창했다.

당시의 모든 사진은 흑백사진이 대부분이었고, 일부 컬러사진도 있었는데 흑백사진에 채색을 해주는 채색사진이 오늘날의 컬러사진을 대신했다. 흑백사진에 대한 개념은 원래의 것이고 사진은 당연히 흑백으로 나온다는 인식 밖에 없었을 때 천연색 사진이라는 컬러사진의 출현은 세상을 놀라게 했다. 물론 조남기의 컬러사진전은 1963년 4월 22일~27일에 전시한바 있지만 그때는 컬러의 질이 낮아 천연색사진은 걸음마단계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컬러사진을 구해 찍을 수 있는 필름으로는 미국의 코닥(KODAK) 필름, 일본의 후지(FUJI) 필름, 코니카(Konica) 필름, 독일의 아크파(AGFA) 필름 등을 주로 사용했다. 처음 컬러사진은 일반 필름인 음화(陰畫) 필름(Negative 타입)으로 현상 후 실제와는 반대로 된 영상을 반전시켜 사진으로 보는 타입의 필름이었다. 사진과 같은 양화(陽畫)로 촬영된 양화필름(Positive 또는 Slide 타입)으로 분류되는 슬라이드 필름은 값이 더 비싸지만 색상이 곱고 인쇄물의 색분해가 용이해 전문가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각종 촬영대회나 공모전엔 흑백보다 컬러사진 작품이 더 호응을 얻게 돼 자연스럽게 흑백에서 컬러사진으로 자리를 옮기자 기존의 현상소인 DPE점들은 모두 문을 닫았다. 반면에 컬러현상소가 하나 둘 늘어나게 된다.

다음에 크게 변화를 보인 것은 각 지역은 물론 중앙 사단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국규모의 공모전이 생겨났다.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의 설립과 사진협회가 있는 지역마다 전국공모전을 통하여 많은 협회 회원을 양성하는 데 기여했다. 그 방법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규정된 점수를 획득한 사람에게 사진협회에 입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으로써 사진작가라는 명예를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촬영대회와 공모전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는 1970년대까지 한국사진협회 목포지부 회원이 10여 명에서 20여 명으로 늘어나는 계기가 됐다.

1960년대 특이한 행사로는 ‘유달산 홍도 전국사진촬영대회’를 들 수 있다. 최초의 촬영대회는 1956년에 있었던 ‘해군참모총장각하 초도순시 및 해군의장대 공개기록사진촬영대회’라는 긴 명칭의 촬영대회가 있었다. 당시의 촬영대회가 지역적 소규모 촬영대회라면 1966년에 있었던 유달산 홍도 전국촬영대회는 오전에 유달산에서, 홍도 선박이 출항하는 오후부터 다음날까지 1박 2일간 진행되었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는 선례가 없는 행사로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쳤으며 입상작품은 목포에 이어서 서울에서도 순회전시를 할 정도로 유명한 대회로 기록되고 있다. 이를 통해 작은 지역에서도 전국규모의 행사를 치를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갖게 됐다.

1961~1970년 사이 한국사진협회 목포지부 회원전은 제7회부터 17회까지 열 번의 회원전을 했는데, 1959년부터 창설된 목포예술제 행사로 참여했기 때문에 매년 비슷한 시기에 회원전을 개최했다. 1년에 두 차례 전시회를 한 경우도 있었는데 1970년 5월 5일~11일 밀물다방에서 열린 목포문화회관 건립기금 모금전이었던 때가 그랬다.

목포에는 문화예술회관이 없어 수많은 전시가 있었지만 모두 다방에서 열릴 수밖에 없어 청소년들의 접근이 어려워 예술품을 감상할 수 없었다. 따라서 문화예술회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기금을 마련하고, 참여의 폭을 넓히자는 취지에서 사진, 미술 등의 예술인들이 건립기금 모금전을 열었다. 여기서 판매되는 수익금을 목포예총에 헌납하기로 한 전시회였는데 목포 회원 외에 중앙에서 김광덕(金光德), 정희섭(丁熙燮)이 각각 찬조출품을 했다. 목포 회원으로는 김준곤, 김상육, 김형태, 장종기, 이기재, 박동호, 문영식, 김용수, 서영민, 정성화, 김정섭, 최정선, 정규봉 등 14명이 출품을 했다. 당시 사진인들의 모임은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저조한 상태였다. 카메라라는 도구도 문제였지만 사진협회에 접근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기존의 회원들 간의 소통의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어서 지역과 지역 간의 상호 방문 등으로 친교를 넓혀가기 시작했다.

목포와 광주 사진협회가 창립된 이래 최초로 양 지부가 친목을 다지는 합동전시회가 1966년 1월

28일~2월 7일에 광주 아자수다방에서 열렸다. 목포지부 회원은 김준곤, 김상육, 장종기, 이원진, 정규봉 등이었으며 광주사협은 송진화, 강봉규, 김상채, 김인규, 김종은, 김홍인, 박상운, 오평오, 이기준, 장지영 등이다. 이들 중 대부분의 작가들이 타계하여 그 기록만 남아있을 뿐이다.

일반인들 외에 학생들의 참여도 많았는데 지금과는 달리 고등학생들의 공모전 등은 바람직한 일이었지만 입시문제 등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학생들의 행사는 제8회 목포예술제 제1회 고등학생 사진공모전의 입상작품전이 10월 1일~15일에 새마을다방에서 열렸다. 학생들의 작품전시이지만 다방에서 전시를 했기 때문에 주인의 양해를 얻어 일부 학생들이 단체관람을 하는 진풍경을 보이기도 했다.

목포 지역에서 뿐 아니라 전국 규모의 공모전 등에서 목포 출신 작가들이 좋은 성적을 보이기도 했는데 당시 국전이라고 하는 대한민국미술대전(국전)에서 목포의 정규봉(丁奎奉)과 김용수(金龍洙)가 입선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사진부 국전은 10월 16일~11월 6일 서울 경복궁미술관에서 열린 바 있었으며, 제4회 한국사진협회 전국회원전이 열린 1966년 12월 26일~30일 서울 예총화랑의 전시는 목포지부 정규봉, 장종기, 이원진, 김상육, 박동호 등이 참가하는 등 전국적인 행사에 참여하여 실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단순한 개인전이나 회원전이 아닌 소모임전도 이채로웠다. 김상육, 김암기(金岩基), 이원진(李元鎭) 등 3인의 전시회를 열었는데 개인전과 단체전 외에 소규모 모임들의 모임전은 흔치않은 일로 세간에 관심을 모았다. 1967년 4월 22일 부터 27일까지 밀물다방에서 열려 많은 관람객들이 찾았다. 서양화단의 원로작가로 활동하다가 타계한 김암기는 초창기에는 사진작품에도 심취하였다. 다음으로 색다른 소모임이 탄생한 일이 있었는데 이 또한 같은 장르가 아닌 서로 다른 분야의 예술인들이 활동을 보인 일이다. 그 무렵 목포에 새로운 예술동인회가 창립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창립전은 1967년 12월 3일~9일 용다방에서 있었다. 이 단체는 사진부문에 김상육, 이원진이 참여했으며 시 부문에 권일송(權逸松), 회화부문에 김암기, 양인옥(梁寅玉), 양계택(梁桂澤), 최낙경(崔洛京), 서예 부문에 서희환(徐喜煥)이 참여했다. 이렇게 다양한 부문별 예술인들이 서로의 장르를 함께 표현하는 목포 최초의 전시회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았다.

광주와 목포사협의 친목을 나누는 합동 전시회(1966년)가 있는 후 목포지부와 광주지부 회원들의 친목을 겸한 촬영회가 1968년 7월 14일 화순 적벽 강변에서 있었다. 각 지부의 회원들과 가족들이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촬영을 마치고 상호 방문과 친목을 나누는 전시 등을 하자고 약속한 바 있어 그 이후로 돈독한 사이가 된 것이다. 전남사단합동전 및 사진인의 밤이 1972년부터 광주에서 시작하여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한 이후에는 사진협회가 있는 목포, 여수, 순천 등지로 옮겨가며 매년 합동전을 열고 있었다. 지금은 전라남도예 13개 지부가 탄생하여 1년 한 차례씩 순환전시를 한다고 해도 10년 이상의 간격이 생긴 상태이다.



그림 1 목포, 광주 사진협회 회원 친목 촬영회 (화순 적벽, 1968년 7월 14일)

### 3. 1970년대 사진 인식의 토착화

지금까지 1961~1987년의 목포 사진계는 흑백사진의 시대가 컬러사진의 변화로 발전하기 시작했고 한국사진협회의 회원전을 비롯한 전국규모의 순회전과 촬영대회 공모전 등의 작품전과 전남지역의 사진단체가 함께 소통하고 친교를 다짐하는 전남사단합동전 등을 통해서 점차적인 성장기를 보냈다면 1970~1980년대의 과정은 지금까지의 고정 관념적 사진에서 점차 그 인식의 범위가 넓어져 전국규모의 촬영대회와 새로운 개념의 회원전 등이 있었다.

회원전은 매년 한차례 회원들의 개인 활동을 선보일 수 있는 연례행사로 꼽히는데, 이와는 좀 다른 의미의 회원전이 있었다. 매년 있어왔던 한국사진협회 회원전 가운데 1970년 목포문화예술회관 건립 기금 마련 회원전에 이어 1971년 8월 25일~9월 1일 밀물다방에서 열린 18회 회원전은 목포예총 기금 마련전이라는 특별한 명분으로 열렸던 것이다.

당시 목포예총은 지금 같은 문예진흥기금의 지원이나 각 지자체의 경상운영보조금이 별도 책정되지 않아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그 사정을 그냥 보고 넘길 수 없다는 회원들의 마음을 모은 기금마련전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여기서 판매된 수익금은 목포예총에 기부한다는 취지의 작품 전시였으나 현실적으로는 작품이 잘 판매되지 않아 회원들의 실망이 컸었다. 당시 그림을 판매한다는 일반적인 상식의 범위는 잘 알려졌지만 사진은 그림 같은 개념이 아닌 기계적 작용에서 얻어진 것이라는 편견 탓인지 몇 점 외엔 팔리지 않아 큰 성과는 거둘 수 없었지만 기금 마련전을 할 수 있었던 사진협회 회원들의 마음만은 널리 알려졌다.



그동안 사진협회 회원들 일색으로 지역 사진예술을 가꿔왔으나 새로운 아마추어단체의 창립은 큰 의미가 있었다. 1950년대 남전사우회 이후 처음 있는 일로 1972년 10월 6일 목포유달사우회의 창립이었다. 유달사우회는 그동안 지역사회 사진예술 발전에 힘써 온 김준곤, 정규봉, 장종기 등의 노력으로 침체한 사진의 문화적 토착을 위해 사진 인구의 확장이 절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미 작품 활동을 하고 있었거나 사진에 취미가 있는 아마추어 등 9명의 회원으로 창립하였다. 이로써 목포에는 한국사진협회 목포지부와 유달사우회라는 사진을 목적으로 한 두 단체가 지역사단을 이끌어가게 된 것이다.

이 지역 사진예술인을 배출하기 위한 대표적인 행사가 촬영대회라 할 수 있는데 1970년대의 촬영대회는 6차례의 행사가 있었다. 그중 어느 해 보다 가장 크고 값진 촬영대회가 몇 차례 있었는데 1973년 8월 11일~12일에 있었던 1박 2일간의 홍도전국사진촬영대회였다. 사상 최초로 해군 경비정과 순시선 등 2척의 해군함정과 홍도에 정규 운항하던 일반 여객선(향남호) 등 3척의 선박으로 촬영대회를 개최한 역사적인 행사였다.



그림 2 유달산, 홍도 전국촬영대회 홍도(1973년 8월 11일)

해군함정으로 촬영대회를 개최한다는 요강이 발표된 후 전국에서 800여 명의 인파로 목포선창과 비좁은 홍도는 난리가 난 셈이다. 출발 당시 대회 측 사정으로 해군함정을 타지 못한 단체가 항의를 하고 접수비를 환불하는 등 시끄러운 일도 있었지만 홍도에 도착해서는 해군함정을 타고 온 참가자들은 일반 여객선에 비해 늦은 밤까지 하선을 못해 고생을 했는데 해군함정은 수심 관계로 육지에 접안할 수 없었기 때문에 멀리 바다 한가운데서 양 옆으로 그물을 내려 참가자들은 그 그물을 타고 내려오는 등 해병대 상륙작전을 방불케 했다. 그렇지만 아무 사고가 없이 끝날 수 있어서 다행이었으며 그 이후로 사진협회 목포지부의 위상은 크게 달라졌다. 이 행사의 입상작품전은 1973년 10월 5일~11일 옥다방에서 열렸는데 이 행사에서 특선을 차지한 박종담(朴鍾澹)은 목포사람으로 부상으로 순금 10돈의 메달을 받아 화제가 됐다.

그 외 1974년 4월 5일의 갯바위촬영대회, 1974년 8월 3일~5일 2박 3일의 유달산·홍도 전국촬영대회, 1976년 11월 14일 해남 대흥사촬영대회, 1977년 11월 19일 군산동 추계사진촬영대회(대



회 전날 사진세미나 개최), 1980년 7월 27일 고하도 촬영대회 등이 열렸다. 그 중 제8회 유달산·홍도 전국사진촬영대회는 한국사진협회 주최 제1회 전국아마추어 사진촬영대회와 겸한 행사로 전국을 7개 지역으로 나눈 행사였는데 서울지역, 충청지역, 영동지역, 영남A지역(부산), 영남B지역(경주 불국사), 제주지역, 호남지역(목포) 등으로 구분해서 동시행사로 개최됐으나 심사는 행사별로 구분하지 않고 7개 지역 행사 작품을 모아 심사를 하는 고르지 못한 심사로 말썽이 있었으나 당시만 해도 한국사진협회 본부의 행사였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목포에 사진단체가 만들어지고 회원들의 개인 활동이 두드러진 초창기에는 여러 차례 개인전이 있어서 스튜디오 사진이 평면공간으로 옮겨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감상의 계기가 있었다면 중반기에 들어선 1970~1980년대는 순회전이나 단체전 등이 활발한 반면 개인전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침체해 있었다.

목포지역 작가로는 겨우 1973년 1월 20일~27일 정밀다방에서 있었던 김상육의 개인전 ‘학(鶴)을 위한 앤솔리지’라는 개인전이 있었을 뿐이다. 그렇지만 외지 행사의 작품전이 자주 전시돼 지역과 중앙간의 문화 예술적 격차를 줄일 수 있었음은 다행한 일이었다.

대부분 촬영대회의 입상작품전 순회전과 국제사진교류전이 있었는데, 순회전은 입상작품의 수상자와 작품 수준 등을 알 수 있게 했으며, 국제사진교류전은 우리나라 외 아시아지역 5, 6개국 등의 사진작가들이 출품한 작품들로 지금까지의 고정 관념적 표현 영역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1973년 1월 20일~27일 정밀다방에서 제2회 전국 칼라사진촬영대회 입상작전, 1973년 12월 23일~30일 정밀다방에서 제2회 백양사 전국 칼라사진촬영대회 입상작품전(이 전시의 광주전은 12월 5일~10일까지 광주 무등다실에서 1차 전시가 있었음), 1974년 9월 6일~10일 밀물다방에서 전시된 제1회 전국관광사진공모전 입상작품전 등은 지역사회 사진예술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를 했다.

1975년에 있었던 특별한 모임은 7월 25일 수석정(중등포)에서 열린 정규봉, 김준곤 두 원로작가의 회갑연이었다. 유달사우회에서 마련한 회갑 기념 펜던트까지 제작해서 마련한 이러한 축하연은 일찍이 없었던 일로 목포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진단체에 귀감이 되고 남음이 있었다. 1976년 11월 20일~24일 코롬방제과점 2층에서 열린 전국 대학생사진공모전 입상작품전이 있었는데 지금까지의 작품전은 일반인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공모전이라는 점에서 특별함이 있었고 전시장 또한 학생들이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도록 다방 전시가 아닌 제과점이라는 점이 특이했다.

특색이 있었던 국제사진교류전으로는 1976년 1월 29일~2월 2일 밀물다방에서 열린 제2회 국제사진교류전이 있다. 이 전시는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등 아시아 5개국 사진작가들이 작품을 출품

하여 이 지역 작가들의 일상의 시각과는 범위가 다른 소재로 많은 반응을 보였는데 전시 도중 1점의 작품이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한 일이 있었다.

대만에서 출판한 작가의 누드작품 1점이 전시장에서 없어진 것이다. 결국 이 사건으로 치안본부에서 목포경찰서에 수사명령이 떨어져 다방 마담을 비롯한 직원들이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등 분위기가 심각해졌다. 외부 공간도 아닌 다방 내부에서 있었음은 내부자 소행으로 판단하고 경찰과 주관을 맡은 목포사진협회 측이 협의를 하여 처음에는 장난으로 가져갔다가 일이 커지는 바람에 내놓지 못하는 것 같다는 판단으로 종업원을 모두 모아놓고 취지를 설명하고 작품을 아무 우체통(당시 우체통은 길가에 세워진 커다란 원통 모양이었음)에 넣어두면 이 사건을 불문에 부치겠다는 최후통첩을 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우체국에서 사진을 찾았다는 연락이 와서 작품을 찾아 다시 전시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있어서 오랫동안 화두에 오르기도 했다.

그 뒤 몇 차례 국제사진교류전 순회전을 열었는데 1977년 2월 1일~7일 국민은행 목포지점 3층 임시전시장에서 학생들에게 관람시킨 일이 있었으며 1979년 11월 14일부터 서울 예충화랑에서 열린 바 있는 국제사진교류전에는 문영식(文永植), 박선순(朴宣淳) 박복남(朴福南) 등 목포의 작가들도 작품을 해서 국제적인 작품발표에 참여를 했다.

목포지역의 사진단체는 한국사진협회 목포지부와 유달사우회 두 단체가 있었는데 또 다른 사진단체가 창립을 했다.



그림 3 사협 목포지부 회원 촬영회(유달산·고하도, 1975년)

1977년 3월 2일 목포사예클럽이 창립을 해서 같은 해 1977년 7월 18일~24일에 밀물다방에서 창립전을 열었으며, 1980년 3월 9일에는 목포정명여자중·고등학교 교사와 직원들을 회원으로 하는 목포정명사진클럽이 창립되었다. 이로써 목포에는 한국사진협회에 이어 3개 아마추어 사진단체가 활동하였다.

이들 단체 중 유달사우회는 광주의 화요사진회와 친교를 맺고 상호 방문으로 우의를 다지기도 했는데, 첫 번째 방문

은 1976년 3월 2일 목포에서 만나 촬영 등 친교를 나누었으며, 두 번째 모임은 같은 해 6월 25일 광주에서 가졌으며 상호 방문 사진전을 열기로 하였다. 이처럼 목포의 사진 단체는 지역 내의 활동에

그치지 않고 외부 단체와도 교류를 하였다. 1966년 1월 28일~2월 7일 광주 야자수다방에서의 목포, 광주 사진협회의 사진교류전과 1968년 7월 14일 화순 적벽에서 있었던 목포, 광주 사진협회 가족 동반 친목 야유회 겸 촬영대회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 무렵 목포에서 초창기부터 사진예술의 저변확대에 앞장서고, 후학들을 지도하는 한편 여러 차례 개인전을 통해 목포지역 사진계의 선구적 역할을 했던 두 원로 작가가 타계하는 일이 있었다. 정규봉(1915~1977)이 1977년 8월 1일 목포에서 타계하였고, 김상육(1917~1977)이 같은 해 8월 24일 제주도에서 타계하면서 목포사진계는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 정규봉이 영면한 유달공원묘지에 목포사예클럽 회원들이 묘비를 세웠는데, 김상육은 제주도에서 타계했다는 소식을 한참이 지난 후에야 알았기 때문에 영결식에는 아무도 참석하지 못했다.

1960년대 이후 1970년대까지 사진예술 분야에는 고정적인 행사와 비정기행사 등 많은 일이 있었는데, 고정적인 행사에는 회원전, 전남사단합동전 참가, 공모전, 촬영대회, 동호회 모임의 전시와 순회전, 학술편람 등을 들 수 있다.

회원전 개최는 목포예술제 행사에 참여한 전시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면서 전시장은 주로 밀물다방을 활용했는데 사진전을 할 수 있도록 벽면을 고르게 평면으로 수리를 하고 조명시설을 바꾸는 전시용 다방들이 늘어나면서 전시공간을 옮겨 다니기도 했으며, 1971년 목포예총 기금 마련 전시에 이어 1975년에는 기금확장 모금전 등 작품의 판매전시를 개최하는 등 특별함이 있는 기간이었다.

목포에서 사진공모전<sup>02)</sup>은 1960년에 처음 시작하여 1964년까지 6회에 걸친 다소 저조한 공모전으로 멈추다가 1980년대 이후 다시 시작하는 공백기를 거쳤다. 이 시기의 회원 활동 중 특징적인 것은 초창기 한때 앞을 다투어 자기 발표를 했던 개인전은 멈춘 상태로 많은 세월을 보낸 것이다. 개인전이라는 작가의 자기세계와 사진의 사명감을 전제한 작업 형태는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같은 취미를 가진 동호회는 점차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달사우회는 창립 이후 매년 회원 전시회를 개최한 이래 목포예술제에 참여하여 그 기간 동안 계속 전시를 하였다. 목포사예클럽은 한국사협 목포지부의 원로작가 문영식을 고문으로 추대해 활발한 작품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창립전에 이어 매년 회원 작품전을 개최했다. 정명사진클럽은 1980년 12월 9일~13일 정명여학교 개교 78주년을 기념해 정명여자고등학교 강당에서 창립전을 개최하여 매년 전시회를 열었으나 목포시내 전시보다 학교 내에서 전시를 하여 학생 위주의 감상에 그친 전시가 많았다.

이렇게 1980년까지 동호인 단체는 세 단체에 그쳤으나 목포사협만 존재하던 지역에 여러 동호인

02) 처음에는 응모전이라 하였다.

단체가 창립해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라는 의미로 볼 때 사진작품 활동에 대한 저변의 인식을 넓혀갔다고 본다. 또한 이들 세 단체와 목포사협이 전남사단합동전에 참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남사단 합동전은 전라남도에서 사진 활동을 하고 있는 각 사진단체들이 한 자리에서 전시회를 갖고 서로의 작품을 비교하며 친교를 다지는 전시로 최초에는 1971년 12월 16일부터 광주에서만 시작하다가 1972년부터 목포사진협회 참여를 시작으로 1976년까지 목포사진협회와 유달사우회가 함께 참가했고, 1977년 10월 21일부터 목포사예클럽이 참여해서 목포에서는 3개 단체가 참가했는데 전남사단 합동전 자체가 지역별 사진인들을 위한 행사이니 사진협회가 있는 지역으로 분산해서 순회전을 갖자는데 의견일치를 보아 목포, 여수, 광주에서 번갈아 개최했다.

첫 순회전 형식으로는 1978년 10월 1일~5일 목포에서 제8회 합동전을 개최했는데, 운영위원장은 문영식(文永植)이 맡아 동방생명 목포지사 화랑에서 개최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의 전시는 소규모적인 다방에서 전시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수많은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공공시설의 전시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곳을 섭외하여 전시하게 됐고 다음 지역은 여수에서 합동전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사진협회가 있는 지역은 광주, 목포, 여수, 순천 지역 밖에 없었는데 순천 지역은 전시공간 관계로 1984년부터 개최하였다.

목포에서 처음 전남사단 합동전을 개최할 때 한국사진협회 전남지부, 목포지부, 여수지부, 순천지부, 무등사진동우회, 화요사진회, 펜타사진클럽, 목포유달사우회, 해남사진동호회, 순천사우회, 목포사예클럽 등 10개 단체가 참여를 했으며, 이 전시회에 출품한 전체 작품 가운데 우수작 10점을 추천해 10결상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시상을 하게 됐다. 10결상을 연속 3회를 받거나 격년 사이로 4회 이상 받으면 전남사단 합동전 추천작가로, 다시 3년이 지나면 초대작가로 등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지금까지 수많은 추천작가와 초대작가를 만들어 왔으며 목포에서 개최될 때는 10개 단체가, 다음 해인 1979년에는 곡성사진동우회, 여수포커스웬밀리 등 15개 단체로 증가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 단체가 늘어났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한국사진협회라는 명칭으로 불린 사협이 1977년 8월 18일부터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로 명칭이 변경돼 목포지부는 한국사진작가협회 목포지부로 변경된다. 명칭은 큰 의미가 없겠으나 당시는 영업사진관을 비롯해서 사진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진작가의 반열에 올라 작가로서의 위상을 과시하여 영업하고자 일반 상인이 아닌 작가라는 명함을 선호한 탓도 무관하지 않다는 중론이 있었다. 이렇게 사진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 예술 분야의 작가들과 비교해서 위촉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사진예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세미나, 강의, 교류전 등의 활동으로 사진에 대한 격을 높이려는 노력이 있었다.

이 무렵 제19회 목포예술제 행사의 일환으로 1978년 10월 9일 목포노동회관에서 목포예술인대회



가 있어 각 분야별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했는데 차범석(車凡錫, 「연극예술의 과제」), 이동주(李東柱, 「한국 문학의 특성」), 양동온(梁東溫, 「예술 목포문단의 어제와 오늘」), 김암기(「목포 화단의 회고」), 박병천(朴秉千, 「민속예술과 강강술래」), 박종길(「사진 예술의 시대적 사명」) 등의 강연이 있었다. 목포에서 대중들 앞에서 사진 예술에 대한 공개 강연은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낯설기도 했지만 편견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이 있었다. 물론 1977년 11월 20일 군산동 추계사진촬영대회 전일에 우리나라 사단의 대표적 작가의 반열에 오른 이정강(李正綱), 이경모(李炯謨)의 세미나도 있었지만 이 경우는 사진협회 회원들과 사진을 취미로 하고 있는 아마추어 단체 회원들의 사진의 기초 이론에 대한 세미나였고, 일반 예술인들과 각 분야별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은 처음이었다.



그림 4 군산동 추계 칼라사진 촬영대회(유교리, 1977년 11월 20일)

#### 4. 영상 시대의 변천

1981~2000년의 사진 문화적 시선으로 본다면 서서히 변화의 물결을 감지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카메라의 소형 경량화와 함께 편리한 휴대성과 표준렌즈에서 광각렌즈와 망원렌즈 등 작가의 시선에 따른 다양성과 고급화된 화질 등 질과 양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첫 번째는 사진 표현 양식의 변화다. 종래의 리얼리즘 형식의 성향 즉 인간의 삶의 애환과 생존을 사실적 소재로 기록한 휴먼 다큐먼트 형식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형식은 어둠과 고난의 시대에 서도 굽히지 않는 인간 삶의 생존과 그 기록들을 다루는 작업이었다고 본다. 당시는 커뮤니케이션의



전달 수단이 오늘날과 같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문화나 문자 그리고 언어가 다른 인류의 언어를 대신할 영상적 언어가 절실했던 시대에 그들의 삶을 통하여 지극히 인간다운 모습과 문화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표현 수단이 필요했다. 1936년 창간한 미국의 시사 사진잡지 『라이프(life)』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포토저널리즘을 주도하였다.

1972년 경영난으로 폐간될 때까지 36년간 1,864권을 발간한 세계적 잡지 『라이프』는 이 지구상에 존재한 인류의 모든 삶의 모습을 전해주는 사진의 사명감을 철저하게 제공함으로써 이 잡지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진인들에게 사진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목포에서도 초창기부터 모든 사진의 주제는 대부분 인간 중심의 테마가 각광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목포에서는 리얼리즘에 속한 인간을 중심 소재로 다룬 사진 표현은 ‘사진 작품’으로 보았고, 풍경을 찍는 사람에게는 ‘살롱 작가’라는 이름으로 저평가되기도 했다.

이런 식의 구분은 오랫동안 바뀌지 않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자연 중심의 소재가 두드러지게 많아지기 시작한다. 사진 활동을 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진작가협회를 중심으로 각 클럽활동이 많아지고 각 회원들은 회원전을 갖게 되는데 사진협회 회원이 각 동호인 단체에 소속되기도 해서 일 년에 몇 차례의 작품을 출품하게 되는데 사진작품은 대부분 전지(20×24 인치) 이상 사이즈로 확대해서 액자(표구)를 제작한 작품이기 때문에 사후 처리가 복잡했다. 더구나 그 소재가 모르는 사람들의 얼굴이거나 현장감 있는 사진은 기념사진과 달라 사실 그대로의 리얼한 사진들이 대부분인데 자기 집에 예술품이라고 걸어놓기는 어렵다는 얘기들을 한다. 사진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인쇄매체와의 관련인데 서적이나 도록에 실리는 사진은 오히려 내용을 풍부하게 하지만 액자를 제작해서 자기 집에 걸어두기도 어렵고 남에게 선물하기는 더 어렵다. 또한 이러한 작품은 팔리기도 어려워 결국은 하나 둘 인물 보다는 풍경위주의 작품으로 그 길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 살롱작품이라고 격을 낮추던 소재가 부지런 하면 누구나 부담 없이 풍경사진을 찍을 수 있고 또 팔리지 않으면 선물할 수도 있으니 자연스럽게 유행을 하게 되면서 사진 작품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함께 온 것이다. 그러한 방법들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사진의 본질에 대한 깊은 잠재의식은 각 공모전에서 다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사진 공모전은 사진작가협회가 있는 지역은 어디서나 전국적으로 다양한 이미지를 공모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공모전 주제는 사진이 초창기부터 주제로 삼았던 인간적 소재를 주로 출품하게 됐으며 또 그러한 소재의 작품들이 모두 입상되는 보이지 않는 흐름으로 전국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유행처럼 공모전 스타일이란 별칭을 얻게 된다. 물론 지역에 따라 특징을 보이는 곳도 있다. 즉 어린이를 소재한 어린이 작품 공모전이나 사람의 표정 중에 가장 아름답다는 미소를 주제로 한 전국 아름다운 미소 사진 공모전, 한국 건축의미를 나타내는 한옥 사진공모전, 또는 농촌 풍물 사진 공모전, 한국 전

통 문화 사진 공모전 등 주제전으로 현대적인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문화와 전통에 대한 보존적 가치가 있는 분야의 소재를 요구하는 다양한 내용이 담긴 이미지 사진 공모전 형식이 유행하기 시작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적으로 자체적 관광 홍보를 위한 관광 사진 공모전 등도 주제전으로 꼽는다.

이 무렵 목포에서도 여러 차례 전국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바 있는데 1960년 제1회를 시작으로 1964년 제6회까지는 매년 공모전을 개최했으나 그 이후로는 오랫동안 열지 못했다. 그것은 공모전을 할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모전을 하려면 입상자들에게 나눠줄 시상금과 입상 작품 전시, 그리고 출품자들에게 배부할 작품 도록 등 여러 가지 진행자금이 필요한데 자체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관의 협조를 얻어야 하지만 그 역시 열악한 시정 형편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공모전에서는 소정의 접수료를 받지만 그 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 등의 이유로 열지 못하다가 1985년부터 제7회 공모전을 개최하게 된다. 제7회 공모전의 입상작은 10월 1일~5일 제일생명 목포지사 2층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이로부터 매년 한차례씩 열린 공모전은 차츰 안정기를 찾아가기 시작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일부 받기도 했다. 목포 인근 지역에는 사진작가협회가 없었기 때문에 가까운 목포지부에서 주관하여 행사를 개최한 일이 잦았다. 제15회 공모전인 전국 사진 공모전 및 전국 농촌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였는데 농촌 풍물 사진 공모전은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의 의뢰를 받아 공모했으며 이러한 행사는 1993년~1995년 한국사진작가협회 목포지부에서 주관하였다. 진도 전국 관광 사진 공모전(1994~1996)과 해남 전국 관광 사진 공모전(1996), 신안 전국 관광 사진 공모전(1996~2000), 그리고 해남 전국 관광 사진 공모전, 무안 전국 관광 사진 공모전(1999) 등 목포사진 공모전 외에 인근지역의 관광사진 공모전을 주관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은 일은 목포지부가 그 규모나 역사성 등 행사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절한 지부로 인정받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림 5 목포 사협 전국사진강좌 (1990년 7월 14일)



그림 6 목포 전국 사진공모전 시상식 (1985년 10월 1일)

두 번째는 카메라와 필름의 변화이다. 먼저 카메라는 거리계 연동식이라는 카메라 창을 통해 촬영 대상을 보면 그 상이 겹쳐서 보이는데 하나로 똑바로 보이도록 합쳐서 찍는 방법의 형식에서 뷰 파인더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바로 보여서 시차가 없도록 설계된 일안(一眼) 카메라(SLR 타입)인 고급형의 보급이다. 이러한 카메라는 각이 넓게 찍히는 광각렌즈와 먼 거리의 피사체를 가깝게 찍을 수 있는 망원계열 렌즈를 사용해서 찍을 수 있도록 선진화 된 카메라인데 최초의 사진기라는 카메라 옵스큐라(Camera obscura)에서 소형 경량화 된 휴대하기 편리한 카메라의 보급으로 사진의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독일의 라이카 카메라에서 개발하였다.

라이카는 1913년 독일의 오스카 버낙이 설계한 최초의 35mm필름의 카메라인데 필름 카메라의 대명사인 35mm필름 카메라는 여전히 아날로그 타입(Analogue type)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금의 디지털 카메라(Digital Camera)의 화상 사이즈도 35mm필름의 규격인 24X36mm 사이즈를 기본으로 해서 풀 사이즈를 대변하는 풀 바디(Full body)라 하고 그에 못 미치는 규격을 크롭 바디(Crop body)라 하여 고급형, 중급형, 보급형 등으로 구분해서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35mm 타입의 필름이 모든 필름의 대명사가 되고 있을 때 미래의 차세대 카메라라는 새로운 카메라가 등장하는데 이 카메라는 세계적인 필름 제작사가 합동으로 연구해 자기화상을 첨부한 APS(Advanced Proses System) 카메라로 종래의 은염사진+자기정보 기록층을 증가시킨 24mm카메라이다. 지금까지의 카메라는 35mm형으로 전 세계에서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24mm형을 내놓게 되자 그 필름을 사용하려면 다시 카메라를 구입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이때를 맞추어 물밀듯이 밀려오는 소형 전 자동카메라의 양산으로 사진계는 일대 혁신을 맞았기 때문에 APS식 카메라는 생산되자 말자 알게 모르게 종적을 감춘 실패작이 되고 말았다. 그 이후 아날로그 타입이 물러나고 디지털 시대가 온 것이다. 종래의 필름이 필요 없는 촬상소자라는 반도체에 의해서 상을 얻게 되는 사진계의 대혁명이 온 것이다. 필름이 필요 없게 돼 세계적인 필름 회사들도 문을 닫았고 필름을 현상하던 현상소도 갈 길을 잃은 것이다. 이제는 디지털 카메라와 컴퓨터만 있으면 모두 해결되는 세상이다. 모든 사진도 전송으로 보내고 수십만 장의 자료도 작은 외장하드에 보관하면 그만이니 세상은 엄청나게 변한 셈이다.

다음은 필름의 변화이다. 초기의 필름은 음화 타입이라는 흑백사진용인데 독일의 아그파(AGFA) 필름에서는 1936년 최초의 컬러필름을 개발한 이래 모든 사진도 흑백 인화지에서 컬러사진으로 큰 유행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컬러필름은 전문가용인 리버설 타입(slide film)으로 바뀌며 인쇄용의 색분해 등 큰 혁신을 이룬 것이다. 그러나 앞서 기술했듯이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모든 방법과 수단은 새로운 방법으로 진화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진의 표현 형식도 느리고 융통성이 부족한 아날로그에서 빠르고 즉시 확인되는 디지털 시대로 자연스럽게 옮겨진 것이다. 그러나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

만치 않다. 동네 어귀마다 자리를 잡고 있었던 시골의 작은 사진관들은 디지털 카메라의 확산으로 수요가 급감하여 대부분 전업을 했거나 문을 닫았다. 사진은 이제 현상소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인화서비스 까지 받을 수 있으며 사진 원고의 후 보정 등 색감이나 분위기까지 감안하는 사진디자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로써 2000년대 중반까지 겨우 유지하며 침체상태로 버티고 있었던 현상소들은 새로운 타입의 현상업을 모색하게 되고 대형 할인매장 한쪽이나 사진이 아닌 다른 분야의 업종과 병행하면서 다양한 서비스와 포토샵을 이용해 종래의 사진 발색이 아닌 수요자들의 구미에 맞도록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20세기 말에 등장한 디지털 바람은 21세기 들어 더욱 발전된 방법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는 1975년 12월 미국 코닥(KODAK)사의 엔지니어인 스티브 새슨(Steve Sasson)이 미항공우주국(NASA)로부터 필름을 사용할 수 없는 우주 공간에서 적합한 제품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에 의해서 개발 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세계 인류가 모두 이용하고 있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후지필름이 2009년 10월에 출시한 3D카메라의 출현으로 사진은 물론 영화의 흥행에 큰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처럼 사진은 엘빈 토플러가 말했듯이 농경문화 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다시 정보화산업으로 들어서면서 디지털은 정보혁명이라 할 수 있는 인간공학이나 우주항공에 이르기까지 급세기 최첨단 과학으로 자리를 잡았다.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사진도 그에 따라 놀라울 정도로 변할 것 같다.<sup>03)</sup>

이처럼 1980년대부터 변화하기 시작한 목포의 사진계는 처음에는 1960~1970년대와 거의 비슷한 활동을 보인다. 사진 단체들의 각종 회원전을 비롯한 촬영대회, 공모전, 개인전, 외부 행사 사진작품 초대전 등 주로 공식적인 행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다.



그림 7 유달산 조각공원 사진촬영대회(KBS 공동주최, 1983년 8월 14일)

먼저 회원들의 연례행사의 하나인 회원전은 1981년부터 목포예술제와 함께 매년 1~2회의 전시를 개최했는데, 1986년도에는 제25회 전남 도민체전 맞이 축전행사로 4월 8일~12일 세종다방에서 개최했으며, 그 다음의 특별전시는 1989년 3월 24일~4월 2일 예충화랑 개관기념전

03) 『한국 후지필름 30년사』

을 겸한 기금마련전이 있었다. 전시작품 중에 판매된 작품은 기금으로 희사하도록 한 전시였는데 목포에는 전용 전시장이 없어 늘 다방에서 전시할 수밖에 없었는데 목포시의 배려로 중앙시장 2층 공무원 매장자리에 전문 전시장인 예충 화랑과 예충 사무실을 마련하여 업무를 시작했으며 그 화랑을 개관하는 자리에 사진작가협회 특별전이 열린 것이다.

그동안 목포에는 전시장이 없어 항상 다방에서 전시를 할 수 밖에 없었는데, 다방이란 손님들이 차를 마시는 공간으로 벽 가까이 의자가 있어 작품을 걸어두면 사람에 가려지므로 천정 가까이 높은 곳에 작품을 설치했었다. 오랫동안 그 습관에 젖은 사람들은 전용 전시장이 마련된 뒤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작품을 높게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은 대부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추어 설치를 하고 있다.

1996년 5월 13일~18일, 그리고 6월 12일~26일 2차에 걸친 회원전은 목포예충 5월의 축제 및 목포문화예술회관 건립기금마련전을 개최하여 전시 작품 판매 수익금을 목포시에 기증한다는 취지로 개최된 회원전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그 뒤 목포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됨으로 해서 모든 예술단체들이 문화예술회관으로 옮겼고 목포의 대표적인 전시공간이 개관돼 1997년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작품전은 문화예술회관 전시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1998년 8월 25일~9월 15일 목포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문예 진흥 지원 사업의 하나로 1998년 영상의 해 기념전으로 목포사협 제48회 회원전을 열었다. 또한 같은 해 제49회 회원전은 영호남 친선을 다지는 목포 마산 교류전을 겸한 회원전으로 1998년 10월 8일~13일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는데 두 지역의 사진인들과의 친목을 나누기 위해 상호 방문 교류 전시회를 갖도록 한 것이다. 그 뒤 매년 회원전은 목포, 마산과의 교류전을 겸한 회원전을 열었다.

회원전에 전시된 작품은 주로 전지(20×24인치) 이상의 사이즈인데 마산과의 교류전은 11×14 사이즈로 통일하도록 하였다. 또한 작품은 액자 대신 마트지에 부착하여 전시 하도록 하였는데 운반할 때 파손의 우려가 없고 가벼워서 운송이 용이하기 때문 이었다. 그 이후로도 지역과 지역의 교류전과 전남사단 합동전, 각종 공모전 등은 모두 이 사이즈로 통용되었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회원전이 아닌 특별한 의미의 회원전도 열려 단순한 연례행사처럼 요식행사에 그치지 않고 전체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과 지역과의 교류전 등을 통하여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회원전은 1981년부터 제28회 회원발표전을 시작으로 2000년 제51회 발표전시까지 24번째의 회원전을 개최하여 회원 개인의 연구 노력은 물론 지역의 사진예술에 대한 인식을 높게 된 것이다. 그 밖에 1997년 10월 1일은 목포 개항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범시민적인 문화예술 행사는 물론 갖가지 축하행사를 통하여 하나 된 시민의 화합과 정서를 돕고 문화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본다.

이와 같이 매년 1회의 회원전을 열었던 한국사진작가협회 목포지부는 연 2회의 전시행사도 개최



해 회원들의 부담도 있었지만 기금마련을 위한 회원들의 자발적 출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이견을 표출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

세 번째는 지역과 지역은 물론 목포지역의 사진단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문화교류의 발전이다. 전남지역에서 사진의 교류와 친목을 다지는 대표적 행사라면 전남사단합동전을 들 수 있다. 전남사단합동전은 앞서도 지적한 일이 있었지만 1981~2000년의 합동전은 1981년 11월 23일~29일 광주남도예술회관에서 제11회전을 시작으로 19회의 교류전을 가졌는데 목포에서 참가한 단체로는 처음에는 한국사진작가협회 목포지부와 유달사우회가 함께 참여했으나 그 뒤 목포사예클럽, 정명사진클럽, 목포사우회, 비파사우회, 목포사우회, 포토아이, 심상사진연구회, 마인드아이, 송림캠퍼스포토클럽, 등으로 참가 단체가 확산되기에 이르자 서남해의 사진문화 발달이라는 점에서 위상을 높였다. 후에 해남, 무안, 완도, 진도 등이 동참해 그 세력을 넓혀갔으며, 이미 광주직할시가 광주만의 단체로 별도의 합동전을 개최하고 있어 사진협회가 있는 전남지역의 목포, 여수, 순천에서의 순회전은 전남지역만의 합동전이라는 큰 틀을 만들고 지역과 지역 간의 사진문화적 교류는 물론 돈독한 친교를 나누게 된 것이다. 특히 목포에서 창립한 목포지역 사진 동인들의 합동전은 지역 내의 사진인들의 친교는 물론 목포시내와 인근지역 사진인들끼리 합동전시를 갖는다는 큰 의미가 있었다. 참가자들 중에는 목포시내 사진단체와 무안, 나주, 영광, 해남, 영암, 진도 등지의 회원단체들이 참가해 지역 간의 친교와 사진의 흐름 등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엮여 나간 것이다.

제1회 목포사진동인전은 제10회 전국체전 맞이 행사로 5월 28일~6월 2일에 기업은행 목포지점 임시 화랑에서 목포사협, 유달사우회, 정명사진클럽, 사여클럽 등이 참가한 목포지역 사진단체의 축하전시를 시작으로 출발하였다. 제2회는 1982년 제21회 전남도민체전 맞이 행사로 열렸다. 제3회는 1984년 제24회 목포예술제 행사로, 제4회는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 성화 봉송 맞이 문화예술축제 행사로, 제5회는 1989년 제28회 전라남도 도민체육대회 행사로, 제6회는 1990년 친목행사로 열렸다. 제7회는 1992년 친목행사로 열렸는데 목포 외에 인근의 나주 사진동호회, 해남 사진동호회, 영광 사진동호회, 영암 월출사진회, 무안의 승달사우회 등이 함께 참여하여 더욱 성대한 행사로 마쳐 인근지역 사진 동호회 회원들과 사진을 통한 친교와 문화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 제8회 동인전은 제32회 전남 도민체전 맞이 행사로 1993년에 그리고 제9회 동인전은 2000년 11월 13일~15일 새로 탄생한 영산강 사진클럽과 심상사진예술연구회, 마인드아이, 무안의 승달사우회, 진도 사진동호회 등이 참여해 성과를 거두는 전시회가 됐으며, 그 이후로도 목포사진동인전은 목포지역과 인근의 사진단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 또한 국제적인 사진 교류전을 통하여 국내는 물론 외국의 사진인들과 교류를 나누는 일은 큰 기록적 성과로 남는 일이다.

그동안 중국과 한국의 문화교류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1995년 10월 30일 한·중 문화교

류전을 협의하는 양국 대표자 조찬 간담회가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려 한국측 대표로 박종길(회장), 이기재, 문영식, 박선순, 임병일(林炳逸) 등 5명이 참가하였으며, 중국측 대표로 오가경(吳可慶), 진학시(陳學市), 개화(開華), 서경성(徐敬誠) 등이 참석하여 양국 교류전에 대한 협의를 나누었다. 이 교류전을 계기로 1996년 3월 14일 팔레스 경양식집에서 목포지역 사진단체 회장단 회의를 열었다. 양국의 질 높은 교류전을 위하여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결국 참가를 희망한 회원으로 출판 회원을 구성해서 그 작품을 중국에 보냈고 1차 전시는 중국 강소성 연운항시에서 1996년 10월 11일부터 장기적 전시를 끝맺었다. 전시 오픈식에 한국측 대표로 한·중 문화협회 안명동 회장과 한·중 사진예술문화교류회 박종길 회장, 김호남, 정일 등 5명이 참가를 했는데 개막식 환영 행사는 화려하고 거대해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개전일 당일 전시장을 다녀간 인원이 5만을 넘었다고 한다.

두 번째 행사는 목포개항 100주년 기념행사에 맞추어 1997년 10월 11일~10일 목포종합문화회관 전시실(여객선 터미널)에서 1차 전시를, 2차 전시는 10월 18일~22일 목포 예충 화랑에서 열렸다. 전시 개막식은 10월 20일 전시장인 목포 예충 화랑에서 있었으며 이 자리에 목포시장 권이담, 목포백년회 김준형 회장, 한·중 문화교류협회 안명동 회장, 한·중 사진예술교류협회 박종길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중국측에서는 허금방(許金方) 등 5명이 대표로 참석하여 양국간 우호 증진을 다졌다. 그 뒤로 한중사진예술교류협회 제2대 회장은 임병일이 맡아 상호 답방을 하면서 중국과 한국에서 교류전을 나누기도 했다. 이렇게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의 문화 교류를 통해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이로 인한 양국의 경제적 교류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목포의 사진인들은 1980~2000년대에 해 왔던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전과 지역의 사진동우회 회원 간의 친목과 사진의 예술적 표현과 소재의 선택 등 다양한 형식을 나눌 수 있는 동우회전, 전국의 아마추어 사진인들은 불러들여 지역의 특산품과 관광자원을 알리는데 직·간접으로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촬영대회와 지역과 지역, 한국과 이웃나라와 문화적 교류협력사업, 그리고 전국의 사진인들이 참여하여 사진 예술의 수준을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전국 공모전, 타 지역과 전국의 유명 공모전 입상작품 초대 순회전, 사진작가협회가 없는 인근 지역의 관광 사진 공모전의 주관을 맡는 등 매년 반복되는 수많은 사진 관련 행사들을 치루면서 시대의 변천사를 써내려 가고 있다.



그림 8 한·중 사진 예술 교류전 환영식 (연운항, 1991년 10월 11일)

## 5. 사진문화의 재도약

그동안 사진은 숨 가쁜 변화 속에 오늘날의 디지털과 3차원 3D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기술의 변천 속에 필름시대가 이렇게 빨리 종식될 줄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그렇다고 사진의 문화가 아주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인류가 존재할 때까지 인간을 기록할 영상적 기록물과 응용성 등 그 가치는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일 것이다.

영상시대의 크나 큰 변화로 사진계의 혁명이라 할 수 있는 아날로그 타입의 황금기가 있었던 20세기를 뒤로 하고 새로운 21세기가 시작되는 2001~2015년 사진의 문화적 변화는 수 없이 많다. 겉으로 보기에는 서서히 진행된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듯 착각할 정도로 커다란 변화였다. 그렇다고 그 변화에 의해서 모든 사진과 관련된 행사나 방법이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다. 오래 전부터 진행된 흐름에서 크게 이탈한 것은 아니고 그 방법이나 규모로 본다면 다소 달라지면서 변천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어쩌면 큰 틀로 본다면 오랫동안 이어 온 맥을 그대로 답습하며 발전·유지시켜왔기 때문이다.

목포지역의 사진 인구도 많아졌고 그 규모도 달라졌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탄생으로 지역마다 어느 장르보다도 설명효과가 두드러진 사진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 파급 효과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통한 관광효과나 홍보물 제작 등 활용도가 높은 사진의 육성에 재정은 물론 행정적 지원을 하며 보탬을 주고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사진 인구 또한 대부분 20명 이하인 규모로 이어오고 있었지만 근자에는 100여 명의 회원으로 늘어났으며 아마추어 회원들 역시 그 숫자가 예전에 비해 월등하게 많아졌다. 이와 같은 일들은 산업사회 이후 사람들의 생활 형편이 좋아져 삶의 질을 높이려는 문화적 접근이 많아졌으며 또한 목포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사진 이론의 강좌나 교육 기관이 늘어난 탓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목포지역에서 최초로 사진학을 강의한 곳으로는 목포대학교 미술학과에서 박종길이 1978~1981년에 정규과목으로는 처음으로 사진학 강의를 하였고 그 뒤 목포 YMCA에서도 1985~1995년 9년간 19기를 배출하였다. 목포과학대학교, 대불대학교, 목포시립도서관, 목포공공도서관, 환경운동연합, 문화의집, 교육부 지정 평생교육원 등 여러 장소에서 사진의 기초 이론을 가르쳤다. 그 밖에 조로옥(趙路鉦, 목포대학교평생교육원), 윤백순(海陽대학교평생교육원), 김영제, 박애록 등도 공공시설에서 강의를 하였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의 자동화된 고급 기종과 보급 기종 등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많았지만 사진을 바로 알고 찍을 수 없었거니와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교육기관도 없어 사진을 취미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초 이론을 가르쳤기 때문에 사진과 카메라에 대한 인식과 그 보급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본다.

이 무렵 한국사진작가협회 목포지부 회원들의 의무사항이며 개인 연구의 실적이기도 한 회원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에 한 번 전시를 하는데 달라진 것은 회원전의 확장에 있다 하겠다. 전에 비해 많아진 회원 때문에 비좁은 전시공간에서는 전시조차 어려웠다. 예전에 모든 전시가 다방에서 이루어진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규모가 커진 것이다. 이 때문에 전시장이 없어 목말라하던 목포시는 예향이라고 자부할만한 문화적 공간이 없어 송재구 시장 재임 시에 시민회관 전시장에서 다시 목포 예총 화랑으로 변경하였고, 이러한 목포 시민들의 고충을 알고 있는 목포 KBS와 MBC가 로비에 전시장을 만들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었지만 보안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역시 오래 가지는 못하였으나, 다행히 목포문화예술회관이 생겨 다소 규모가 큰 전시장으로 많은 애로를 해소한 셈이다. 그러므로 사진, 미술, 서예 등 평면예술 분야와 공간예술 분야 등이 발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시장이 있어 회원전이나 대규모 단체전 유치에 큰 도움을 받고 있으나 조명시설이나 접근성 등 많은 문제들도 지적되고 있다.

2001년 이후 한국사진작가협회 목포지부 회원들의 정기 회원전은 2001년 10월 9일~14일 제52회 회원전을 시작으로 2015년 10월 2일~8일 문화예술회관 전시장에서 67회차 회원전이 열렸는데 전시 기간 동안 1998년부터 시작된 사협 목포지부와, 사협 마산지부가 작품을 함께 전시하는 교류전이 계속 이어져 매년 연례행사가 되었다. 다만 2003년 10월 1일~6일 문예회관에서 열린 제6회 목포 마산 교류전에는 마산지부 회원들의 작품은 미리 보내왔기 때문에 전시는 할 수 있었으나 당시 태풍 피해로 인하여 마산지부 임원들이 참석할 수 없었던 일 외엔 계속 상호 방문이 이어져오고 있으며 그 이후로 2010년부터는 사협 청주지부와 교류전도 병행해 계속되고 있어 지역 내의 단순한 연례행사에서도 국내의 타 지부와 교류전, 나아가 영호남 교류전, 목포, 마산, 일본 사진작가들이 함께 전시하는 국제 교류전 등으로 목포 사진계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타 지역과의 교류전에는 각 대표들이 상호 방문으로 오픈식에 참석을 해서 전시를 통한 친교를 다지는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되고 있다.

목포지역 내의 사진단체 회원들과의 합동전시회가 1981년부터 시작했지만 2000년 까지는 9회에 그쳤고, 2000년 이후에는 2004년 제11회전이 8월 21일~25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고, 다시 2010년 제12회전이 열린 비정기 전시가 열렸다. 목포지역 사진동인전은 목포 시내에 소속된 사진단체 회원들끼리 친목을 다지며 사진예술의 수준을 높이는 데 큰 뜻이 있었는데 지나온 세월에 비해 저조했던 이유는 전남사단합동전 같은 전라남도 내의 전 사진클럽 회원들이 참가해 매년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를 했으며 클럽별 매년 정기 회원 사진전을 발표하다 보니 여력이 없어진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목포지역 사진동인전은 비정기적인 전시를 할 수밖에 없었으나 다행스럽게 비정기전 이기는 하지만 인근 지역인 해남, 영암, 해남, 완도, 무안 등지의 아마추어 사진단체들이 참가해 서부권 지역의 사진단체 회원들의 친목을 다지고 정보를 공유하는 고무적인 행사로 평가 받고 있다. 그동

안 연도별로 격차가 있었던 목포사진 동인전을 살펴보면 1981년 5월 28일~6월 2일 기업은행 목포 지점 2층 전시실에서 열렸던 제1회 동인전을 시작으로 2010년 6월 6일~10일 문화예술회관에서의 제12회가 열렸는데 대부분 전남도민체전이나 올림픽 성화 봉송행사 등 특별한 경우 필요에 의해서 전시된 경우가 많았다.

목포지역에서 각 사진단체 회원들의 작품전과 전남사단합동전 같은 대단위 작품전이나 클럽 별 그룹전 등은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데 2000년대에는 개인 발표 전시가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



그림 9 목포시합 회원전 및 목포·마산 사진 교류전 (2004년 10월 6일)



그림 10 우이도 누드촬영대회 신문 소개 (2006년 8월 20일)

### 표3 2001~2005년 개인전 현황

번호	작가명	전시명	전시기간	전시장소
1	임동수		2001년 3월 26일~4월 1일	목포문화예술회관
2	최옥수	'예술인 프로필'	2001년 4월 13일~18일	목포문화예술회관
3	조로옥	'숲, 그리고 자연'	2001년 12월 1일~7일	목포문화예술회관
4	김민숙	'북한 사진전'	2002년 2월 23일~27일	목포문화예술회관
5	유태원	'백두산의 사계'	2002년 10월 25일~29일	목포MBC 전시실
6	이석희	'야생화'	2004년 3월 13일~15일	목포문화예술회관
7	박종길	'선사(禪師)의 고향(故鄕)'	2004년 5월 22일부터 1년간 상설 전시	초의 명선관
8	조로옥	'유달산(濡達山)의 사계(四季)'	2004년 9월 10일~16일	목포문화예술회관
9	임종범		2005년 3월 15일~21일	목포문화예술회관
10	박종길	'다(茶)꽃 이야기'	2005년 5월 28일부터 1년간 상설 전시	
11	고경남	'신안 이야기, 가보고 싶은 섬을 찾아서'	2006년 4월 21일~27일	목포문화예술회관
12	박종길	'고향(故鄕)의 전설(傳說)'	2006년 6월 3일부터 장기 상설 전시	초의선사 명선관
13	임종범	'남도의 품에 안기다'	2008년 3월 8일~4월 6일	보해 매실농원(해남)
14	조로옥	'파노라마 목포'	2008년 3월 28일~4월 2일	목포문화예술회관
15	임종범	'자연과 풍경'	2008년 5월 15일~30일	함평 다이너스티(골프장) 내
16	김정효		2009년 6월 12일~18일	목포문화예술회관
17	김영환	'목포 스케취'	2010년 4월 23일~29일	목포문화예술회관



번호	작가명	전시명	전시기간	전시장소
18	조로옥	'우포늪'	2012년 6월 1일~30일	목포우체국 내
19	박종길	'목포(木浦), 그 기억의 편린(片鱗)'	2012년 6월 8일~21일	시청앞 미술관
20	박종길	'잊혀진 기억속의 목포'	2012년 8월 19일~31일	목포역 미술관
21	박종길	'KOMAS 초대전'	2014년 9월 26일~10월 1일	목포문화예술회관
22	제갈성일	'KOMAS 초대전'	2014년 9월 26일~10월 1일	목포문화예술회관
23	서현호	'인생은 자유다'	2014년 10월 17일~22일	목포문화예술회관
24	박종길	'초의선사(艸衣禪師)의 사계(四季)'	2015년 5월 22일부터 1년간 장기 전시	초의선사 명선관
25	구관호	'해양사진'	2015년 7월 24일~26일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로비

이러한 이유는 막대한 취미의 영역에 안주하거나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작품을 구매할 만한 수요자가 빈약한 때문으로 보인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작품전시를 하고 또 그 전시에 대한 도록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러므로 개인전을 할 때 작품이 팔려야 되는데 서양화나 동양화 등 회화나 서예에 비해 사진작품은 잘 팔리지 않으므로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전시를 열어도 사후 그 작품을 보관하기조차 어려운 환경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전시를 하게 된 이유는 자기 세계를 알리는 사명감이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약간의 문예 진흥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그 비용은 투자한 비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지만 예술가들의 자존심이나 창작력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일 것이다.

예술분야에서 그 작가를 평가할 때 어디에서 입선을 했다는 것 보다 개인 발표를 얼마나 했느냐를 두고 평가하는 일이 많다. 이는 그것을 통해 작가가 자기세계를 갖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를 알 수 있기 때문인데 단체전이나 소규모 그룹 전시는 제도적 의무사항이지만 개인전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얻어지는 수행의 결과이기 때문에 더욱 값지게 평가하는 것이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지부가 있는 각 지역의 협회 행사 중 지역 행사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촬영대회와 사진공모전일 것이다. 목포지역의 촬영대회는 1956년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격년별로 개최하다가 최근에는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00년까지는 신안군의 협조로 우이도 누드촬영대회 등을 개최하였고, 2007년 신안 우전해수욕장 머드 비키니 사진촬영대회, 2007년 목포 제주 왕복선인 씨월드고속훼리 선상 누드촬영대회와 신안 튜립축제 촬영대회 등 신안군 주최 행사에 목포지부에서 주관할 맡아 진행하다가 2015년부터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신안군지부가 창립됨에 따라 신안군 관련 사진행사는 신안군지부에서 맡아서 하게 돼 2014년부터 사협 목포지부 주관 촬영대회는 목포시 해양문화축제 행사기간 동안 개최하기로 하였다. 주로 목포시 하당 일원에서 목포시가 주최한 해양문화축제는 삼학도 일원으로 옮겨 다양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촬영대회 역시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일원에서 2014년 8월 3일에 개최하였으나 태풍으로 인한 우천 관계로 실내 촬영대회로 진행했으며,

제29회 촬영대회 역시 목포해양문화축제 행사 기간인 2015년 7월 26일에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열렸다.

다른 행사도 그렇듯이 촬영대회도 자원 확보가 큰 문제이다. 행사 진행비, 시상비, 모델비, 도록 인쇄비 등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진행하지 못하고 격년제로 행사를 했으나 목포해양문화축제 행사 프로그램에 속한 촬영대회는 풍족하지는 못했지만 무난히 마칠 수 있었다.

1960년 현상사진응모전이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시작한 목포 전국 사진 공모전은 2015년까지 38회의 연륜을 쌓았다. 초창기 공모전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지부가 별로 없었지만 최근에는 전국 공모전이란 명칭이 수 없이 많아 그 질이나 수준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앞 다투어 행사를 개최하는 이유는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에 가입하기 위한 아마추어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1년에 한차례 지부마다 개최하는 사진공모전 역시 끊임없는 잡음이 들리기도 하지만 사진 인구의 저변 확대라는 명분으로 계속되고 있으니 앞으로는 디지털 시대에 맞도록 그 방법과 분야를 세분해서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목포지부 회원도 많이 확장되어 전라남도 내 사진작가협회 지부 인원으로는 제일 많은 지부에 속한다. 그동안 20명 미만에서 100여 명으로 확장됐으니 많이 불어난 셈이다. 목포지부 회원으로 소속된 지역의 회원들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지부 승인 규정에 의한 정회원 10명이 넘어야 지부 승인이 나기 때문에 지역의 지부를 창립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인근 지역인 목포지부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정회원 숫자가 불어나면 자기 지역으로 이적하는 경우는 나주지부, 진도지부, 신안지부 등이 있었다.

한편 오랫동안 회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타계하신 회원도 여럿 있었다. 2000년 이후 타계한 회원은 원로 회원부터 중견 회원에 이르기까지 생전에 사진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활동으로 많은 공헌을 한 회원들이다. 김준곤(金浚坤, 2000년 2월 3일), 장종기(張宗基, 2010년 1월 10일), 이경자(李敬子, 2011년 11월 5일), 문영식(文永植, 2013년 9월 5일), 이기재(李基在, 2015년 3월 5일), 박추곤(朴秋坤, 2015년 8월 24일) 등 회원들이 타계를 했는데, 목포사협이 초창기 어려웠을 때 헌신적으로 노력을 한 이들이다. 앞으로 사협뿐 아니라 목포지역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열심히 예술 활동을 했던 예술가들이 타계할 시 그 업적을 알리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일도 후배들이 해야 할 일일 것이다.

그동안 목포사진계는 1953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21세기 디지털시대를 맞았다. 초창기에 비해 회원들의 인원 확장을 계기로 그만큼의 넓은 공간과 규모를 필요로 한 발표 공간과 재원의 필요성 등 모든 행사는 원만하게 완성시킬 수 있는 조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자

체적인 노력과 관의 지원은 절대적 요건에 해당되지만 무엇보다 새 시대에 맞는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타의 지원에 의지하는 것 보다 모든 회원들이 철저한 자기와의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수행과 담금질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목포의 사진문화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회원들은 사진가라기보다 생업과 관계가 없는 아마추어 같은 취미의 영역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몸부림 같은 프로정신이 미약한 것 같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소속된 단체 회원들끼리 소통의 차원에서 의무적인 전시회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야외 촬영 정도만 참여할 뿐 자기세계를 표출하는 연구와 노력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룹 전시는 잘 참여를 하는데 개인발표전은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에 비해 단체전은 1972~2015년 44회의 전남사단 합동전 참가와 29회의 사진촬영대회, 67회의 회원 작품전 그리고 38회의 전국사진공모전과 마산, 청주, 여수, 일본, 중국과의 교류전 등 다양한 업적을 쌓아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일제가 물러가고 해방이 되면서 목포에서 최초로 목포사진예술연구회라는 사진단체의 창립을 계기로 목포의 사진단체가 주최 주관한 모든 사진 활동과 개인 활동, 그리고 교류활동 등을 통하여 목포에서 발생한 사진문화나 사진예술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카메라 메카니즘의 눈부신 발전과 다양화된 프로그램에 의해 사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특정인이 아닌 대중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 평준화 수준으로 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카메라의 보급이 많아지면서 영상 매체의 남용으로 사생활 침해 사례와 고급 카메라만 선호하는 사치풍조가 날로 높아지고 사진작가라는 이름의 작가정신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예술은 어느 장르를 막론하고 많은 수행의 과정이 필요하다. 자신과의 피나는 싸움에 의해서 얻어지는 장인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카메라만 있으면 사진작가 행세를 하는 그릇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일부 사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적어도 사진작가라면 사진의 사명과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 세상에서 나라와 문화가 다르고 언어와 피부색이 다른 인류가 같은 시대에 공존하며 살고 있지만 희, 노, 애, 락의 감정은 서로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진의 사명은 우리 시대 인간 생존의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담아 그 기록들을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목포에서 어둡고 어려웠던 시대에 살면서 그 생활의 값진 기록들을 남겨 온 선배 사진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기록들을 재확인하고 현실의 문제들을 다시 자료로 포함시켜서 후대에 물려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진가의 사명이자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박종길 | 세한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